

“

내 아이의 원인모를 아토피
우리 남편의 만성두통과 비염
코를 찌르는 포름알데히드 냄새

”

새가구 증후군, 알고 보니? 원인은 보드 증후군!

가구 구매 후, 1~2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가구 속 보드만 바뀌어도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량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이제, 친환경 동화에코보드가 최선의 예방입니다



[동화에코보드란?]

동화기업의 친환경 공법으로 가구 속 보드의
포름알데히드 방출을 최소화한 건강한 자재입니다



국내 유명 가구 브랜드와 함께하는
[친환경 자재등급]확인 캠페인

[친환경 자재등급]은 소비자의 건강한 가구 선택을 돕기 위해
가구 속 자재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표시한 등급입니다

● 친환경 자재등급 확인 캠페인은 **동화에코보드** **E1**
iloom **FURSYS** 가 함께합니다



가구 속만 확인해도, 선물이 평평 터지는
동화에코보드 런칭 이벤트(4/14~6/30)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에코보드 체험게임에 도전하세요!
일률 책상세트, 가족 국내 여행권 등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dongwhainside.com)를 참조하세요

GREEN DONGWHA MAGAZINE

나쁜동화
SUMMER 2009 Vol.144

비전 2013

친인간·친환경 생활공간 솔루션 제공을 통하여 존경받고 인정받는 기업



1948년 창업 이후 동화는 국내 목재산업의 선구자로 굴곡의 역사 속에서도 글로벌 목질자재 선도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친인간·친환경 생활 공간 솔루션 제공을 통하여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열정적인 도전을 시작하였다.

Since its founding in 1948, Dongwha has grown into a global manufacturer of wood-based materials and became a pioneer of Korea's wood-related industry. Dongwha members work hard to attain their new vision, which is to become the most respected and recognized company by providing living solutions for humans and nature.

Vision 2013

Contents

GREEN DONGWHA MAGAZINE

나무동화

SUMMER
2009 Vol.144

계간·비매품
통 권 144호
발행인 승명호
발행일 2009년 5월 31일
발행처 동화홀딩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3 www.dongwha.co.kr
제 작 크리웍스 2272-5651

Dongwha Vision	02	Vision 2013	
	06	CEO's Message	비전 달성을 위한 역량 강화에 집중합니다
	10	Dongwha News	
	18	Dongwha In Media	
	19	New Product	동화자연마루, 합성목재(WPC) 사업 진출
	20	In Memory of Founder Seung Sang-bae	목재업계의 큰 별 고 승상배 총회장님의 영전에...
	22	Memorial Address	추모사(追慕辭)
	26	Special Theme	삶의 질을 높이는 친환경 녹색성장에 앞장선다
	28		"가구는 걸이 아닌 속 보고 고르세요"
Corporate Culture	32	Corporate Culture	동화가족들이 전파하는 긍정 에너지
	34		불평·불만, 이렇게 바꾸자
	36	Communication	제안제도와 5S TOP 진단의 모든 것
	40	CSR	고운 꿈 꾸게 하는 사랑의 손길
Global Dongwha	41	Global Dongwha	배려와 이해에서 글로벌 동화가 시작됩니다
	42	Design Trend	온화한 자연의 텍스처로 감성 자극하는 2009 바닥재 트렌드
Dongwha Focus	44	Person In	친환경 보드 수지 개발로 녹색 시대를 열어간다
	46	Passion of Life	자신의 한계를 넘어 하나가 된 동화인들
	50	Pride Dongwha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원가 혁신 프로젝트의 선봉장이 되다
Life & Culture	52	Youths in Dongwha	'기숙사에서 주말 즐기' 진수를 보여준다!
	54	Book & Human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사고, 감동에 찬 역사 인식
	56	Viva Family	국민아~ 지금처럼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주렴!
	58	Epilogue	

Let's Bolster Our Ability to Achieve Goals

비전 달성을 위한 역량을 갖추시다

“우리가 함께 공유한 비전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고, 살아서 꿈틀대며,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비전에 생동감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인재들이 넘쳐나야 하며,
이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통하여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성과주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창립 61주년 기념사 중에서

“We must breathe new life into our goals so that they won't become empty promises but instead be vibrant,
powerful engines that will move us forward.
To that end, our organization must be full of qualified, talented people.
By nurturing creative human resources, we must create a corporate culture that produces stellar results powered by creativity.”

From CEO's Message Marking 61st Anniversary of Dongwha's Founding

창립 61주년 기념사

비전 달성을 위한 역량 강화에 집중합시다



오늘은 창립 61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역량 개발과 회사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화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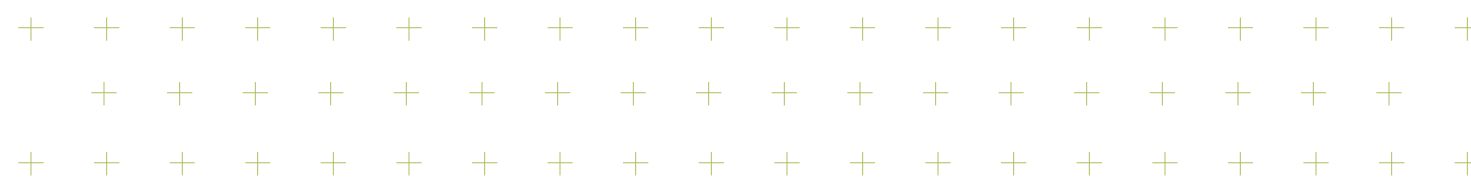
1948년 창업 이후 동화는 국내 목재산업의 선구자로 굴곡의 역사 속에서도 글로벌 목질자재 선도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친인간, 친환경 생활공간 솔루션을 제공하는 존경받고, 인정받는 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열정적인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동화를 일구어온 선배 동화인과 앞으로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이 자리에 계신 동화인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동화가족 여러분!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보드 업계의 시장은 이미 50% 이상 대폭 축소되었으며, 유가나 환율은 물론, 원재료 자체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원가 상승은 수익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경영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보드 원재료 확보의 어려움은 MDF용 원재료를 PB용 원재료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러 가히 원재료 대란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마다 동화인은 하나가 되었으며, 이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해 왔습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에너지가 되었으며, 동화인의 꿈과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기폭제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동화인의 저력을 모아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점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창립 6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저는 동화 가족 여러분과 2013년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신년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혁신활동의 내재화를 통한 위기 극복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활동을 위기극복을 위한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우리의 핵심역량으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돌이켜 보면 그간 회사에서는 TQC, BPR, TPM, 지식경영, BSC 등 많은 혁신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혁신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거나,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혁신활동이 조직에 내재화되어 필수 업무활동으로 작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인 접근으로 일관했거나, 미흡한 실행력의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동화만의 혁신활동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어려운 경영환경을 과감히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경영혁신팀 주관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경비절감, 원가혁신 활동은 물론, GPI, GHR 등 분야별로 실시되고 있는 모든 혁신활동이 효과적으로 작용되어 성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2013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불황기에도 다른 어떤 기업보다 탁월한 성과를 만든 일본 기업이 있습니다. 신발 전문 판매점인 ABC 마트, 외식업체 와타미, 일본제강소 등이 그러한 기업으로 모두가 불황으로 허덕이던 2008년에도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전년 대비 이익 성장률 10%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들 기업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이렇듯 좋은 성과를 만든 것은 '새로운 사업정의를 통해 역량을 개발함은 물론, 전사적으로 이를 추진력 있게 실행한 결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동화인이 함께한 자리에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유한 비전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고, 살아서 꿈틀대며,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비전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내에 인재들이

넘쳐나야 하며, 이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통하여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성과주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시대 선조가 왕위에 있을 시절에는 이황, 이이와 같은 석학급의 지식인과 이순신, 권율과 같은 명장이 있었고, 류성룡과 같은 충신, 허준과 같은 명의가 활동하던 시기로,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차고 넘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인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난으로 피난생활까지 겪어야 했던 이유는 리더가 귀를 닫고 인재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통하여 성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조시대와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조직 내에 우수한 인재들이 육성되고 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하여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새로이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화가족 여러분!

우리, 61년을 이어온 동화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또한 동화의 성장을 위해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어온 선배 동화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미래의 동화를 함께 만들어 갈 우리 스스로를 위해 힘찬 결의를 다져 봅시다.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 자리를 통해 마음속 깊이 각인합시다.

끝으로 창립 61주년을 맞아 장기근속을 통하여 회사의 성장에 기여해 오신 장기근속 포상 수상자 분들과 지난 한 해 우수한 성과를 통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신 우수사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자신과 가족, 그리고 회사를 위해 더욱 정진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4월 2일 송명호

Let’s focus on strengthening our capability to achieve Dongwha’s visions.

As we celebrate the 61st anniversary of Dongwha’s founding today,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est appreciation to the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who are making best efforts to develop their capabilities and contribute to the company’s development amid difficult economic conditions.

Since its foundation in 1948, Dongwha has grown into a global manufacturer of wood-based materials after having established itself as the pioneer of Korea’s wood-related industry.

Now, the Dongwha staff are working to attain another major goal, which is to become the most respected and recognized company by providing living solutions for humans and nature.

I would like to once again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all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who have made Dongwha the company that it is today as well as to those who will be building Dongwha’s future.

Dear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The ramification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erupted in the latter half of last year have now spread to the real economy, leading to a contraction of more than 50 percent in board-related industries. High oil prices, foreign exchange rates and a serious shortage of raw materials have led to a sharp rise in prime costs, ultimately resulting in low profits.

In particular, due to the slump in the construction sector, it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to secure raw materials for boards, making it inevitable to replace MDF-based raw materials with PB-based ones.

However, Dongwha employees have shown their remarkable ability to come together and turn a crisis into an opportunity in times of difficulty. Crises have provided an opportunity for us to unite our strong will and

dreams before new challenges. Now is the time for us to gather our potential and overhaul our business from a more fundamental point of view and come up with a new business approach.

In celebrating the 61st anniversary of Dongwha’s founding, I would also like to reaffirm our pledge to achieve our Vision 2013. As I mentioned in my New Year’s message, it is imperative that we boost our abilities to overcom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achieve our vision through innovation. To this end, I would like to stress two points.

Firstly, we must continue innovation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and foster our key ab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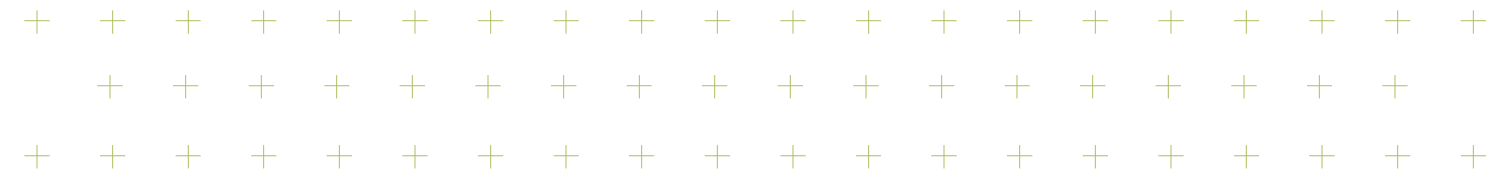
Dongwha has been carrying out diverse innovation projects, including TQC, BPR, TPM, knowledge management and BSC. However, most of them were carried out temporarily and ineffectively, hampering our innovation efforts from taking firm root.

It is time for us to come up with practical and effective innovation activities and foster our ability to create new opportunities and resolutely overcome difficulti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All innovation activities carried out by Dongwha’s Business Innovation Team, including cost-cutting, GPI and GHR, must be carried out effectively and continuously so they can reap tangible results.

Secondly, we must spare no efforts to achieve our Vision 2013.

Despit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everal Japanese firms have achieved remarkable business performances. ABC Mart, Watami Company and Japan Steel Works are among the firms that reaped significant profits last



year while other companies struggled with economic difficulties. Such firms managed to boost their profits by more than ten percent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 reason they were able to produce remarkable results despite the challenging business conditions was not only their abilities to overhaul their business but also their determination to continue to hone those abilities.

Last year, we announced our new vision and strategies. Now, it is time for us to actively strengthen our capabilities to materialize them.

We must work to breathe new life into our new vision so that it won’t end up being an empty promise but will instead become a powerful driving engine. In order to make our vision come true, our organization must be filled with qualified human resources who can yield strong results using their creativity and establish result-oriented corporate culture.

The period when King Seonjo ruled the Joseon Dynasty was a time when there were a significant number of talented people, including scholars Lee Hwang and Lee Yi, great commanders Yi Sun-shin and Kwon Yul and skilled physician Huh Joon. However, despite the abundance of talents, King Seonjo’s period witnessed a series of national crises as the king refused to heed their suggestions and failed to create a nurturing environment for them.

We must not make the same mistake that King Seonjo made and must create an environment where talented people are fostered and are able to freely engage in creative activities and ultimately produce results.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reaffirm our pledge to realize our Vision 2013.

Dear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Let us take pride in the 61-year history of Dongwha and applaud former Dongwha employees who



worked hard for our company. Let us also renew our determination to create a bright future for Dongwha. I am confident that we will become the best company in the world despite the challenges.

Lastly,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our employees who have received awards for their long service and those who have made outstanding contributions this past year. I also hope that Dongwha employees will continue to exert efforts to hone their abilities and benefit their families and company.

Thank you.

April 2, 2009
CEO Seung Myung-ho, Dongwha Holdings

Dongwha Holdings

제96, 97, 98차 사무직 열린광장 실시 96th, 97th, 98th Agora for Office Workers



● 제96차 사무직 열린광장이 2월 20일(금), 동화기업 본관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열린광장은 성과 몰입도 결과 및 전사 경비절감 실적을 공유하고 인재의 중요성에 관한 동영상 시청이 있었다. 제97차 열린광장은 경비절감 실적발표 및 사무직 5S 피드백이 있었으며 제98차 열린광장은 각 사업군별 소식을 공유하고 'CO₂ 절감을 위한 폐목재 재활용' YTN 방영분과 '몰입'에 관한 동영상 시청하였다.

The 96th Agora for office workers was held February 20 at the Incheon auditorium. Office workers shared the results of their efforts to cut costs and watched a video clip about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s. At the 97th Agora, the results of cost-cutting efforts and office workers' 5S feedback were announced. At the 98th Agora, each department provided updates on its results. The participants also watched a YTN clip about the recycling of waste wood for reducing carbon dioxide emissions and a video about dedication to one's work.

팀장 성과관리 워크숍 운영

Managers' Workshop on Result Management



● 동화홀딩스 인사기획팀에서는 3월 10, 13, 17일 3일간 동화전체의 전략이 개인의 업무활동에 연계될 수 있도록 부문장과 팀장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비전 및 전략 등 관련 정보의 공유기회를 갖고 성과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Line of Sight의 중요성과 GHR 제도를 공유하는 시간과 함께 Team Activity 활동, 목표수립 스킬 향상 과정을 통해 팀장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Dongwha Holdings' OD Team organized workshops for managers on March 10, 13 and 17 in a bid to connect Dongwha's overall strategy with individual activities. The purpose of the workshops was to establish result-oriented management culture in which ideas on vision and strategy are actively shared. A special activity was carried out on strengthening team leaders' leadership and goal-setting skills. The program underlined the importance of Line of Sight and the GHR system.



만성불량 해결을 위한 DMAIC 과정 운영

DMAIC Process to Resolve Product Defects

● 동화홀딩스 및 품질경영부문에서는 품질의식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품질혁신 활동을 위해 품질 프로젝트 리더 및 선임자, 생산관리자, 품질관련 근무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3차에 걸쳐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원가혁신 활동과 연계되어 공장별로 도출된 19가지 만성불량 해결을 위한 품질 프로젝트 리더를 양성하고 공정품질 자료에 대한 분석능력 습득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교육 완료 후 4개월간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6월 중 결과 발표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Dongwha Holdings organized a workshop for quality project leaders, production managers and other employees related to quality control in a bid to promote awareness about quality and quality innovation. The workshop came in line with cost innovation activities and focused on fostering quality project leaders and their ability to analyze data on the quality of particles to ultimately resolve chronic product defects. Dongwha Holdings plans to observe developments in such efforts for the next four months before announcing the results in mid-June.

동화홀딩스 제61주년 창립기념식

Dongwha Holdings Celebrates 61st Anniversary of Its Founding



● 동화홀딩스 제61주년 창립기념식이 4월 2일(목) 동화기업 본관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창립기념식에서는 New Wood Creator, New Wood Innovator,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이 있었으며, 송명호 부회장은 기념사에서 회사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화 가족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였다.

A ceremony celebrating the 61st anniversary of Dongwha Holdings' founding was held at the Incheon auditorium on April 2. The New Wood Creator and New Wood Innovator awards as well as long-service awards were given out. In his speech, CEO Seung Myung-ho lauded Dongwha employees for exerting their best efforts for Dongwha's success.

임원 리더십 워크숍

Workshop on Leadership for Executives

● 동화홀딩스에서는 4월 3일부터 이틀간 동화 임원을 대상으로 임원 리더십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임원 리더십 다면 진단결과 피드백을 통해 리더십 개발계획을 작성하였고 개인 별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진단을 통한 상호이해 및 성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Dongwha Holdings organized a two-day workshop on leadership from April 3 for all of Dongwha executives. The participants devised a comprehensive plan on developing strong leadership skills based on the feedback and opinions on ways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nd create synergistic effects.

안전행동 실천 결의대회 실시

Meeting on Promoting Job Safety



동화홀딩스에서는 4월 8일(수), 전사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안전행동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였다. 나와 가족, 동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안전행동 실천 구호 제창과 함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우권 소장의 직무 및 역할에 대한 안전교육이 있었다.



A meeting of top supervisors was held at Dongwha Holdings on April 8 to promote work safety. Participants chanted slogans vowing to exert best efforts to ensure their safety as well as the safety of their family members and coworkers. Lee Woo-kun, a senior manager at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gave a lecture on the role of supervisors and how they should ensure safety at the workplace.

Dongwha Enterprise

PB공장 일 최고 생산량 달성

PB Plant Sets Record in Productivity



동화기업 PB2공장은 3월 18일 580m³(18mm E2) 기록 달성에 이어 3월 30일 601m³(18mm E2) 일 최고 생산량을 달성하였다. 이어 PB1공장, 대성PB공장도 일 생산량 최고 기록인 954m³, 872m³를 달성하였다. 이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운 원재료 상황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혁신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게 되었다.



Dongwha Enterprise's 2nd PB factory set a record in daily output on March 30 at

601m³. The feat came shortly after the factory's productivity recorded 580m³ on March 18. Soon after that, the 1st PB factory and Daesung Wood's PB factory recorded their highest daily outputs at 954m³ and 872m³, respectively. The results came after many trials and errors thanks to the passion, endeavor and innovative spirit of the factory workers.

포르말린 1공장 무재해 달성 표창 수상

1st Formalin Factory Awarded for Zero Accidents



동화기업 포르말린 1공장은 2월 5일(목), 무재해 달성 기준 380일의 13배수인 4,930일을 달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패를 수여하였다. 포르말린 1공장은 지난 1995년 7월 1일부터 2009년 1월 17일까지 총 4,930일 동안 무재해를 달성하였으며 김성수 기술사원은 사업장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개인표창을 받았다.



Dongwha's 1st formalin factory was awarded on February 5 for recording zero accidents over 4,930 working days. That is 13 times as much as the original goal of 380 days. Technician Kim Sung-soo received an award for his contribution to promoting safety at his workplace.

동화에코보드 론칭

Dongwha Launches Eco-boards



동화기업은 프리미엄 친환경 시장 공략을 위해 국내 최초 친환경 가구자재 브랜드인 '동화에코보드'를 론칭하였다. 동화에코보드는 새가구증후군의 원인이자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최소화한 SE0~E1 등급(친환경 자재등급/KS 규격 기준)을 받은 친환경 가구자재로, 인증 마크인 '동화에코마크'를 부착해 소비자와 만난다. 이와 함께 인체에 유해한 가구자재 생산 개선을 위해 국내 가구 브랜드와 함께 '친환경 자재등급'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Dongwha Enterprise launched the eco-friendly furniture material brand "Dongwha Eco-boards" in a bid to secure leadership in the nation's premium nature-friendly materials market. Dongwha's eco-boards emit minimum formaldehyde and are certified with the Dongwha eco-mark, which is given only to eco-friendly products. As a leader in the domestic furniture market, Dongwha Enterprise has also introduced an eco-friendly materials labeling system.

Dongwha Nature Flooring

‘사랑의 마루기증’ 연간 프로젝트 진행

Annual Flooring Donation Project



● 동화자연마루는 ‘사랑의 마루기증’ 연간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 시내의 어린이 사회복지 시설에 마루를 무상으로 시공해 주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엄마모의고사’ 이벤트를 통해 누적된 131,590cm²(약 398평)이 사랑의 마루로 기증된다. ‘사랑의 마루기증’ 연간 프로젝트는 지난 1월 노원구 상계 5동의 ‘산돌아동센터’의 첫 무료시공 완공에 이어 2차 시공은 한길지역아동센터의 어린 이들을 위한 공부방에 친환경 강화마루 플로렌을 시공하였다. 동화자연마루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고객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Dongwha Nature Flooring installs floors free of charge in children welfare centers in Seoul as part of its annual project “Donating Flooring with Love.” More than 131,590cm² of floorings will be donated through the “National Mother’s Exam” event. As part of the project, Dongwha Nature Flooring installed floors for free at the Sandol Child Center in Nowon-gu in January and at a study room for children at the Hangil Child Center. The company is determined to continue to give back to society through various volunteer activities.

Dongwha Resources

‘희망의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참여

“Sharing Trees of Hope”



● 동화리소시스즈와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청계광장에서 ‘희망의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에 참여하였다. 동화리소시스즈는 도시에서의 폐목재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우리의 산림을 보전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 임업’ 실현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PB로 만든 나무 조형물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목재 재활용의 경제적 효과, 온실가스 발생 통계 및 나무의 일생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Dongwha Resources and the Korea Wood Recycling Association took part in the “Sharing Trees of Hope” event at the Cheonggye Plaza in Seoul to mark Arbor

Day on April 5. Dongwha Resources held an exhibition on eco-friendly urban forestry where wood can be preserved by recycling waste wood. The event provided information to citizens on wood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e economic benefits of wood recycling.

Dongwha SFC Housing

사업설명회 개최

Dongwha SFC Housing Holds Biz Presentation



● 동화SFC하우징은 5월 9일(토), 판교신도시 토지주 17개 팀을 대상으로 리츠칼튼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3월 15일에 개최된 1차에 이어 진행된 2차 사업설명회로 5월부터 시작된 판교 단독주택 건축허가 개시에 따른 대기수요의 고객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2008년 추진한 블록화, 동시착공에 이은 새로운 영업방식으로 향후 신도시 지역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주주사인 동화홀딩스, 스미토모임업의 소개와 당사 주택의 디자인 및 특징점, On-Line 고객 커뮤니티 설명과 Q&A 순서로 진행되었다.

Dongwha SFC Housing held a business presentation at the Ritz Carlton Hotel on May 9 for landowners at Pangyo New Town. The presentation was the second of its kind; the first one was held on March 15. The event was aimed at customizing demand amid the issuance of construction permits for houses in Pangyo. It also introduced Dongwha Holdings and Sumitomo Forestry as well as their designs, strengths and online customer community services. Similar presentations will be held for other new provincial towns.

Overseas

DFB, 김종수 대표이사 위기극복 메시지 전달

DFB, CEO Briefing Session at Dongwha Malaysia

● 동화 말레이시아의 김종수 대표이사는 3월 11일 DFB 빌라에서 현 경제 상황과 위기에 대처해 나



갈 방법, 그리고 동화 비전에 대해 설명하였다. 동화 말레이시아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품질을 향상하고 생산 비용을 낮추는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매진하고 있다. 김중수 대표이사는 MDF 산업이 맞고 있는 지금의 힘든 시기를 '겨울'에 비유하며 품질에 최선을 다하고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때 불황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가장 강력한 MDF 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과 함께 동화를 따뜻한 '봄'으로 바꿔 가자고 격려했다. 이번 김중수 대표이사의 위기극복 메시지는 닐라이 직원들이 현 경제 상황을 이해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함께 사기를 북돋우는 계기가 되었다.

Dongwha Malaysia CEO Kim Jong-su gave a briefing at DFB Nilai on March 11 o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ways to overcome it. He also explained Dongwha's Vision 2013. Despite the financial crisis, Dongwha Malaysia strives to expand to new markets with better quality and lower costs. Calling the current period a "winter season" in the MDF industry, Mr. Kim urged employees to turn the season into "spring" by stressing the need to enhance quality and maximize capacity to become the strongest MDF manufacturer. Mr. Kim's speech boosted morale of the DFB Nilai employees by helping them better understand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and encouraging them.

Dongwha Malaysia, Dato' Sabri 고문 직원들 격려

Briefing session by Group Advisor at Dongwha Malaysia



● 동화 말레이시아 Dato' Sabri Ahmad 고문은 3월 24일 닐라이, 머복, 쿨림 공장에서 직원들을 위한 격려 연설을 하였다. Dato' Sabri Ahmad 고문은 세계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동화의 모든 가족들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Dato' Sabri Ahmad 고문은 사업에 있어 수익, 환경, 사람이라는 세 가지 중요 요인을 꼽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 최소화를 강조했다.

Dongwha Malaysia Advisor Dato' Sabri Ahmad issued words of encouragement to the employees at the Nilai, Merbok and Kulim factories on March 24. Dato' Sabri talked abou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urged all Dongwha employees to exert their best efforts to overcome the crisis. Citing profits, the environment and people as the three key business elements, Dato' Sabri stressed the need to boost competitiveness and productivity and minimize costs.



DPN, 유지보수 작업 기간에 바비큐 파티를 열다

DPN Holds Barbecue Party

● DPN은 4월 3일 유지보수 협력업체 직원, 사무실 직원, 공장 직원이 모두 모여 사우스랜드 마타우라에 있는 DPN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기간에는 에너지 센터의 온도가 매우 높고 안전한 보수를 위해 공장이 조업을 중단한다. 따라서 이 기간에 DPN은 모든 협력업체들과 직원들을 초대하여 점심에 샐러드, 콘슬로, 고기, 빵을 곁들인 바비큐 파티를 열고 그동안 어렵고 힘든 작업에 대한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바비큐 파티를 위해 경영지원팀 직원 및 비즈니스 리더십팀 직원들이 점심을 마련하고 요리하는 데 참여했다.

On April 3, all DPN members, including maintenance contractors and office and technical workers, held a barbecue party outside the DPN office at Mataura, Southland. The party was held when the factory was closed for several days for the annual maintenance procedure. All operations at the factory are suspended for safety reasons and also because the temperature soars at the energy center. The DPN employees get together for barbecue lunches during annual checkups to enjoy salads, meat and bread. At the latest gathering, they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ir co-workers' hard work.

DPN, 2009년 마케팅 회의 개최

DPN, Marketing Conference 2009



● DPN은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마타우라 커뮤니티 센터에서 2009년 DPN 마케팅 회의를 열었다. '격동의 시대에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DPN, DWUSA, DFB 직원들의 참여했다. 세계 경제 불황은 여느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MDF 시장에도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되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생산 과정 및 운반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노력하여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기회들을 찾는 데 주력했다. 생산 측면에서, 본사는 실제 작업시간, 효율, 특히 제품 품질의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The 2009 DPN Marketing Conference was held from February 24 to February 27 at the Mataura Community Center. Employees from DPN, DWUSA and DFB took part in the conference that was held under the theme, "Surviving the Turbulent Times." The participants discussed how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impacted the MDF market,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production and transportation. They also discussed ways to seize opportunities and set new goals. In terms of production, the participants placed top priority on efficiency and product quality.

친환경 자재 산업 선도하는 동화기업



한국경제 <2009. 5. 12> ▶




동화자연마루, 합성목재(WPC) 사업 진출

Dongwha Nature Flooring Launches WPC Business



동화자연마루는 최근 건축·조경소재로 각광 받고 있는 합성목재(WPC, Wood Plastic Composite) 사업부문 진출을 선언하고 판매망 확보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목본과 고분자수지를 혼합한 합성목재는 주로 데크, 사이딩, 펜스 제품 등을 제조하는 데 이용되는데, 목재의 질감을 보유한 것이 주요 장점으로 손꼽힌다. 또한 목재에 비해 반(半)영구적이라 할 수 있는 제품 수명과 합리적인 유지보수의 장점이 더해지면서 최근 국내 외장건재 시장에서 합성목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동화자연마루의 합성목재 사업 진출 결정은 최근 합성목재의 수요 급증을 정확하게 예측한 결과로, 합성목재 판매는 방부목 사업에서 국내 1위의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포레뉴팀이 담당한다. 포레뉴팀이 방부목과 합성목재의 판매를 병행,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국내 외장건재 시장에서 확고한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포레뉴팀은 우선 단납시장부터 공략하면서 점차 동화자연마루 전국 대리점을 통한 시판 시장에게까지 판매망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마루판매 1위 동화자연마루가 합성목재 판매에서도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두기를 기대해본다. 

Dongwha Nature Flooring, the market leader of exterior building materials in Korea, has unveiled plans to advance into the Wood Plastic Composite (WPC) area. As part of such plans, Dongwha Nature Flooring is focusing efforts to secure sales networks for the new construction material. Made of waste wood and recycled plastic, the WPCs are mostly used in deck floors, siding and fences. The biggest advantage of the composite material is its wood texture.

Dongwha Nature Flooring's decision to advance into the field of WPCs reflects the growing demand. The Forênuë Team, which has led sales efforts in the area of processed wood, will be in charge of WPC sales. By selling both processed wood and WPCs, the Forênuë Team seeks to further solidify its top position in the nation's exterior construction materials market. The team will first target short-loan markets before expanding its sales network to large markets through Dongwha Nature Flooring branches across the nation.

Dongwha Nature Flooring, the nation's number one flooring seller, hopes to achieve remarkable results in WPC sales as well. 🌿

목재업계의 큰 별 고 승상배 총회장님의 영전에...



승상배 총회장님은 국내외에 동화의 이름을 알리며
우리나라 목재산업을 이끌어 온 역사적인 인물이셨습니다.
총회장님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동화기업을 설립한 후
술한 역경들을 불굴의 정신으로 극복해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동화가 6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오랜 세월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바치셨습니다.

총회장님은 1948년 목재산업의 황무지에 첫걸음을 내디뎠고
20년이 지난 1968년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인천목재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당신께서 먼저 과감히 도전하였기에
동화는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후 1989년, 1992년, 1996년, 1997년, 2003년, 2004년을 거치면서
동화의 이름을 단 공장들이 늘어났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코린도그룹을 통한 인도네시아에서의 성공은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치신 당신의 열정이 맺은 결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계가 동화를 방문했고, 동화가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동화의 가족이 많아졌고, 동화의 시장이 넓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이 떠나신 동화에서 가족으로서, 후배로서, 직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해 봅니다.
뛰어난 업적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좀 더 오래도록 당신과 함께 일하지 못 하는
아쉬움에 여전히 당신의 빈자리가 크게만 느껴집니다.
항상 자신감에 차 있던 당신의 웃음이 기억납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생전에 당신은 당당한 카리스마와 부드러움을 동시에 갖춘 분이셨지요.
시간의 흐름을 막아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당신을 향해 달려가고 싶습니다.
지난 한 시대를 당신과 보낼 수 있었던 행복을 추억하며
이제 때늦은 후회와 슬픔을 접고 당신을 떠나 보내야겠습니다.

당신은 어두운 밤하늘의 별이셨습니다.
거센 파도 치는 바다에서도 울퉁불퉁 험난한 산길에서도
우리가 헤매지 않고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한결같이 크고 밝게 빛나던 별이셨습니다.
목재산업의 큰 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밤하늘의 별이 지는 것은
햇빛 찬란한 새 날에 자리를 양보하기 위함임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해도
동화의 성공에는 언제나 당신의 열정과 노고가 깃들어 있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겠습니다.

부디 편히 잠드소서.

Dongwha Enterprise Founder Seung Sang-bae, you were a
historic figure in the nation's wood industry. Thanks to your
endeavors, the nation and the world came to know Dongwha.

After founding Dongwha Enterprise in your 20s, you overcame
numerous hardships to make Dongwha what it is today.
Armed with a will of iron, you devoted your entire life to
Dongwha, which is celebrating the 61st anniversary of its
founding this year.

You made your first step into the wood industry in 1948,
then another big step in 1968 with the creation of a wood
industry complex in Incheon.
You continued to achieve goals that many believed were
impossible, and you laid a foundation for Dongwha's rock-solid
growth. The number of Dongwha's factories grew in 1989,
then in 1992, 1996, 1997, 2003 and 2004.

Dongwha's success in Indonesia through the Korindo Group
was the result of your determination to expand Dongwha's
overseas presence. The world visited Dongwha and Dongwha
advanced into the world.

The Dongwha family has grown and its market has expanded.
Though you are not with us anymore, we promise to become
your proud successors.
Your absence is all the more palpable as we strive to protect your
legacy and mourn your passing.

We will always remember your confident smile.
We will never forget your calm disposition that was not easily
wavered.
You were both charismatic and gentle-hearted.
If we could only turn back time, we would like to see you for
one last time.
Remembering happy memories, we now bid you farewell,
putting aside belated regrets and deep sadness.

You were like a star in the dark sky -- a bright star that guided us
through high waves and rough roads.
A big star in the wood industry has fallen.
But we know that stars fall from the sky to give room for a new
bright day.

Your passion and endeavors will always be part of Dongwha's
bright future.

May you rest in peace.



고 日凡 승상배 총회장님 영전에

유명을 달리하신 일범 승상배 총회장님의 명복을 빌면서 삼가 영전에 추도의 염(念)을 바칩니다.
일범 승상배님의 타계는 우리나라 목재산업 업계에 있어서 거목이 쓰러진 것 같은 애달프고 안타까운 이별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한 평생 나무와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해 오신 일범께서는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나 만주별판과 서울 타향에서 생활하면서 온갖 역경과 고난의 파란 많은 인생 여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일범께서는 불굴의 의지와 과감한 용기, 탁월한 기업가 정신으로 동화를 일구시고 더불어 한국 재계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일범께서는 우리나라 목재산업에 대한 남다른 집념을 불태우신 훌륭한 기업가셨습니다.

1948년 동화기업을 창업하고 인천 가좌동에 한국목재공업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해외산림개발과 국내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또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3개의 국민훈장도 받으셨습니다.

고인을 가까이 하셨던 분들은 국내 목재산업의 선구자로서 인천에 대규모 저목장을 건설하실 때 직접 진두지휘에 나섰던 총회장님의 도전적인 정신과 파티클보드 공장, MDF 공장을 건립하시면서 감개무량해 하시던 모습,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글의 무더위 속에서도 원목 산림과 고투하셨던 고인의 패기 넘쳤던 모습들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고인의 뜻과 열정은 코린도그룹과 동화홀딩스, 그리고 포레스코 회사로 녹아 들어 글로벌 목재기업군으로 크게 성장하게 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총회장님께서 평소 강조하셨던 동화의 경영철학과 기업이념은 장남인 은호 회장을 주축으로 훌륭한 자제분들이 잘 계승하여 동화기업의 끊임없는 발전과 변영, 그리고 사회적 공헌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일범께서는 성정이 다정다감하고 근면하시며 사회와 이웃에 대한 사랑 또한 많으셔서, 생존 시에는 여러 사람들의 표상이자 귀감이셨습니다.

회사를 사랑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기업경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한편,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이웃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셨습니다.



이북 5도 도민회 일과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종로문화원 원장과 해외산림개발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문화예술 진흥과 산림환경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총회장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근엄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로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배려하셨으며, 격려와 함께 때로는 충고의 말씀으로 후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소박한 음식을 드시고, 단아한 옷 매무새가 몸에 배어 검소한 생활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총회장님의 밝은 얼굴과 잔잔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생자필멸 회자정리(生者必滅 會者定離)는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 하였습니다. 비록 고인을 보내드리는 슬픔이 크고 아쉬움이 많지만, 고인의 가시는 길이 평안하도록 명복을 빌어 드립니다.

부디 저 세상 좋은 곳에 가 편히 쉬시면서 그토록 사랑했던 남은 가족들을 잘 지켜 보살펴주시옵소서.

삼가 두 손 모아 일범 승상배 총회장님의 영원한 명복을 비읍니다.

2009년 5월 20일
영결식 조문 대표 전 한미은행장이 상근



In memory of late Dongwha Enterprise Founder Seung Sang-bae

On behalf of the Dongwha family, I would like to offer my deepest condolences and pay tribute to the late Dongwha Enterprise Founder Seung Sang-bae.



Mr. Seung’s death marks an extremely sad and regretful farewell as he was a key figure in the nation’s wood industry. He was born in Jungju, North Pyeongan Province in North Korea, and he went through numerous hardships after he left his hometown and moved to Seoul.

However, with his will of iron and courage, Mr. Seung

founded Dongwha based on his outstanding entrepreneurship and emerged as a leading figure in Korea’s business sector. He was a talented entrepreneur with strong determination to nurture Korea’s wood industry.

Since founding Dongwha Enterprise in 1948, Mr. Seung created a wood industrial complex in Incheon and worked on developing forest resources in Indonesia as well as on developing Korea’s wood industry. Mr. Seung received three Orders of Civil Merit for such endeavors.

Many of you who knew Mr. Seung well will remember how he personally took charge of building a large-scale lumberyard in Incheon as a pioneer of the nation’s wood industry. You will also remember how moved he was to see the construction of Dongwha’s first particle board and MDF plants. We will never forget his energy and enthusiasm displayed in the scorching jungles of Indonesia.

Mr. Seung’s determination and passion have laid the foundation for the Korindo Group, Dongwha Holdings and Foresco Company to gain global recognition. His children will carry on Dongwha’s management philosophy and corporate principles, which he emphasized so very often. Armed with such principles, Dongwha Enterprise will continue to develop, prosper and contribute to society.



Mr. Seung was respected and loved by many for his gentle heart and hardworking personality. While exerting all-out efforts to manage his company and encourage his employees, he also gave back to society and his neighbors through volunteer work.

He actively took part in the Saemaeul Movement and activities of an association of residents whose hometowns are in North Korea. Mr. Seung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promoting culture and the arts as well as developing forest environment when he served as chief of the Jongno Culture Center and headed an association on developing forest resources abroad.

Mr. Seung always greeted people with a serious yet warm smile, making others feel comfortable with his presence. He

led junior employees in the right direction by offering them advice and words of encouragement. He was also a very simple man who liked to simple food and dress in refined but simple clothes.

Mr. Seung’s smiling face and calm voice will be remembered forever. Though the sadness of bidding farewell to Mr. Seung is deep, the Dongwha staff hopes he will rest in peace and will continue to watch over Dongwha.

We pray for the repose of Mr. Seung’s soul.

Lee Sang-geun,
Addresser of memorial address and
former president of Hanmi Bank
May 20, 2009

삶의 질을 높이는 친환경 녹색성장에 앞장선다

— 동화의 친인간 · 친환경 생활공간 솔루션

최근 탄소와 환경유해물질의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맞물려 친환경 제품 사용을 확산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등의 친환경을 중심으로 한 사회 전반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나무와 함께 반세기 이상을 함께해 온 우리 동화는 이미 1970년대에 폐목재를 재활용한 파티클보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시작으로 친환경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출시한 친환경 프리미엄 보드 동화에코보드는 건강에 해롭지 않은 자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업계 최초로 자재 브랜드에 환경을 접목하여 환경 관련 단체와 기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폐목재 활용으로 친환경 · 녹색성장 선도

우리 동화는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친환경 녹색 성장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첫 번째 축은 폐목재 재활용을 통한 산림의 보호다. 폐목재를 파쇄하여 칩을 생산해 내는 동화리소시스 그린 팩토리(Green Factory)의 목재 칩 생산량은 하루에 약 600톤, 연간 약 20만 톤에 달하며, 이는 여의도 63빌딩 규모의 건물 세 채를 채우고도 남는 분량이다. 국내 PB 산업 전체로 보면, PB 제조에 폐목재를 재활용함으로써 매년 여의도 면적의 약 16배에 달하는 산림이 보호되고 있다. 동화기업의 폐목재 재활용은 산림 보호 효과 이외에도, 원목수입 대체효과(연간 1164억 원), 폐목재 소각처리 비용 절감(연간 75억 원), 폐목재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폐목재 소각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등 최소 2000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까지 있다.

친환경 등급 표시로 신뢰 받는 '동화에코보드'

두 번째 축은 몸에 해롭지 않은 또는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친환경 가구 자재의 보급이다. 친환경 자재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각종 환경 단체 및 가구업체와 함께 협력하여 지난 4월에는 친환경 프리미엄 보드 브랜드 에코보드를 출시하고 자체적으로 친환경 등급 표시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품질에 대하여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기업이 앞장서서

마련해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70% 이상이 E2 등급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가까운 일본에서는 E2는 물론 E1조차도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최근 동화에코보드의 출시에 따른 각종 마케팅 활동으로 소비자 인식이 점차 변화해 가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목질판 상제품에 대한 규제안을 내놓음에 따라 생활공간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에 속도가 더해지고 있다.

인간 중심의 제품 개발은 계속된다

이외에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동화자연마루의 강화마루, 강재 대비 0.3%의 CO₂를 방출하는 목조를 골재로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동화SFC하우징의 친환경 목구조 주택, 폼알데히드가 전혀 방출되지 않는 폼알데히드 제로 보드(출시예정) 등 동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각 사업부문 별로 인간 중심의 친환경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원을 재활용하여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목질 자재가 인간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여하는 친인간 · 친환경 생활공간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동화의 비전이다. 친환경 · 녹색성장에 우리 동화가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

Spearheading Green Growth with Eco-friendly Products

- Dongwha's Living Solutions for Humans and Nature

The environmental movement is gaining pace in the nation recently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policy to minimize carbon emissions and promote green growth. Dongwha, which has journeyed together with wood for the past half a century, has continuously pursued eco-friendly growth since it first produced particle boards by recycling waste wood in the 1970s. Dongwha drew the attention of environmentalist activists in April with the launch of eco-boards that pose zero harm to human health.

Green Growth through Wood Recycling

Dongwha is striving to achieve green growth based on two basic principles. The first one is preserving forests by recycling waste wood. By crushing waste wood, Dongwha Resources' Green Factory produces around 600 tons of wood chips daily and around 200,000 tons annually.

By recycling waste wood in the production of particle boards, Dongwha helps to preserve forestlands spanning an area 16 times larger than Yeouido District of Seoul and save at least 200 billion won in costs related to waste incineration. Moreover, it contributes to curbing carbon dioxide emitted by waste wood incineration.

Dongwha Gains Trust with Eco-Friendly Materials Labeling System

The second green growth principle is providing nature-friendly furniture that poses zero harm to consumers. In a bid to promote the use of eco-friendly materials, Dongwha launched its eco-boards in April and implemented an "eco-friendly materials labeling system" in cooperation with various environmental groups. The move is significant in that it

ensures consumers of the quality of products they purchase. Currently, more than 70 percent of furniture used in the nation is E2-rated, whereas in Japan E1- or E2-rated furniture is not distributed in the market at all. The launch of Dongwha's eco-boards has also raised consumer awareness of the hazardous effects caused by furniture materials. Furthermor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devised regulations on engineered wood products, contributing to efforts to promote eco-friendly products.

Development of Eco-Friendly Products Goes On

Aside from its eco-boards, Dongwha continues to develop a wide range of nature-friendly products, including Dongwha Nature Flooring's laminate flooring and Dongwha SFC's eco-friendly wood houses built with wood that emits not more than 0.3 percent of carbon dioxide. Another product to be launched soon is formaldehyde zero boards, which do not emit any chemical compounds that can cause respiratory disorders. Dongwha strives to minimize damage caused to forests by recycling resources and promoting human- and nature-friendly living solutions to usher in the era of green growth. 🌱

동화에코보드

“가구는 겉이 아닌 속 보고 고르세요”

Dongwha Launches Eco-boards : Healthy Furniture
Rules the Market

최근 몇 년 간 로하스(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적 삶과 웰빙 트렌드가 강력한 라이프스타일로 자리잡으면서 가구자재의 친환경 여부가 소비자들의 가구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 디자인이 아름다운 가구,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가구를 넘어 인체에 무해한 가구, 환경친화적인 가구가 소비자 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가구가 아토피, 비염, 천식 등 피부 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키는 주요 병인(病因)으로 지목되면서 유해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안전한 친환경 가구의 등장이 절실했던 것이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달라진 소비 기준을 반영하듯 이번에 출시된 동화기업의 프리미엄 친환경 가구자재 ‘동화에코보드’는, 새가구증후군으로 인한 호흡기 및 각종 피부질환으로부터 안전한 제품이다. ‘동화에코보드’는 새가구증후군의 원 인물질이자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최소화해 가구에서 방출되는 유

Consumer interest in healthy living has been on the steady rise in recent years. As a result, a growing number of consumers opt for eco-friendly materials when choosing furniture. More and more consumers base their purchasing decisions on the environmental friendliness of furniture materials rather than on their design or functions. As furniture is known to cause various dermatological and respiratory diseases, including asthma and atopic dermatitis, demand for eco-friendly furniture has surged these days.

To keep pace with the latest trends, Dongwha Enterprise has recently launched premium, nature-friendly eco-boards, which pose no health hazards. Dongwha’s eco-boards have helped eliminate concerns over harmful components contained in furniture by emitting low levels of



해물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

동화기업은 친환경 제품을 표시하는 환경 마크인 ‘동화에코마크’를 부착하는 동시에 에넥스, 일룸, 퍼시스 등의 국내 우수 가구 브랜드와 함께 가구자재의 제조사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친환경 자재등급’ 표시제도를 시행해 고객들이 가구를 선택할 때 제품의 친환경성 여부와 품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한다.

이번 프리미엄 친환경 가구자재 브랜드 동화에코보드의 출시를 계기로 ‘친인간, 친환경 생활공간 솔루션을 제공하는 존경받고 인정받는 동화기업’이라는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동화에코보드에 대한 현명한 소비자들의 평가 및 의견과 동화에코보드와 함께하는 가구 브랜드 대리점을 찾아가 보았다.

formaldehyde.

Consumers can personally check the eco-friendliness and high quality of Dongwha Enterprise’ boards from the so-called “Dongwha eco-marks,” which certify eco-friendly products. Apart from producing leading furniture brands in Korea, Dongwha Enterprise has also implemented an “eco-friendly materials labeling system,” which enables consumers to check the manufacturer and origin of furniture materials.

With the launch of its eco-boards, Dongwha hopes to further establish itself as a recognized and respectable company that provides living solutions for humans and nature.

We also heard the frank opinions of consumers and furniture manufacturers about Dongwha eco-boards.

♣ 우리가 동화에코보드를 확인하는 이유

건강을 지켜주는
동화에코보드, 파이팅!

Dongwha Eco-boards,
at the Forefront of Promoting Healthy Lives



귀염둥이 아들 태규야, 장롱 속에 들어가 폭신거리는 이불 위에서 온갖 장난감을 가져다 놓고 놀기를 좋아하는 장난꾸러기 아들! 엄마는 너의 비염이 항상 걱정이란다. 가구가 건강해야 우리 아들 비염이 좋아질텐데... 엄마가 일찍이 동화에코보드를 알았더라면, 우리 태규가 비염으로 고생하지는 않았을텐데 말이다. 먹을거리만 신경 썼지 엄마는 가구에서 이렇게 나쁜 포름알데히드가 나오는 줄은 몰랐단다. 비염으로 고생하는 너를 위해서 친환경 자재등급표를 꼭 확인하고, 동화에코보드로 골라야겠구나. 아들아, 걱정 마라. 너의 비염은 엄마와 동화에코보드가 지켜줄테니... 태규야, 너의 건강한 방을 위해 파이팅!

My son, Tac-gyu, loves to play in the closet on top of a pile of blankets. But I’m always worried about his rhinitis. However, I realized that his condition wouldn’t get worse with the right choice of furniture. If I had only known about eco-boards earlier, Tac-gyu could have spent fewer days suffering from rhinitis. I only focused on feeding him right and didn’t pay much attention to how nature-friendly our furniture was.

가구는 집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구를 살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가격이었죠. 그런데 그동안 제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새가구증후군을 그저 새 가구라 그러려니 하고 넘긴 것 같습니다. 동화기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가구자재에는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최소화한 친환경 가구자재를 사용하고 동화에코마크를 부착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동화에코마크를 꼭 확인하겠습니다.

When buying furniture, I first looked at its design and price. I thought that only new furniture caused health problems. I also learned that Dongwha Enterprise’s furniture emits minimum formaldehyde and is certified with eco-marks. I will always check for Dongwha’s eco-marks when buying furniture from now on. I want to protect my son’s health with the help of Dongwha eco-boards. I am grateful for the information on Dongwha’s eco-marks.

〈만화로 보는 동화에코보드〉



동화에코보드와 함께라면 안심입니다

Safe to Use Dongwha Eco-boards



친환경 자재등급표가 있어 더욱 건강한 가구,
안전한 제품으로 인정 받는 일룸 대치점



iloom

“일룸은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구 브랜드입니다. 친환경 자재등급표는 일룸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건강한 가구임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일룸 상품관리팀 팀장

Iloom is a furniture brand that places top priority on quality. Thanks to the eco-friendly materials labeling system, consumers can personally check whether this brand uses eco-friendly materials.

- Iloom Product Management Team leader



동화에코마크와 친환경 자재등급표를 부착하여
제품의 친환경성 여부와 품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에넥스 등촌 쇼룸



ENEX

“에넥스는 국내 최초로 접착제를 쓰지 않는 워터본을 개발, 친환경 부엌가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동화에코보드와의 제휴를 통해 가구의 겉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속에도 건강을 담았음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에넥스 마케팅팀 팀장

Enex has strived to promote eco-friendly kitchen furniture since developing its adhesive-free “water borne” products. By using Dongwha’s eco-boards, we are confident that we will gain trust from consumers for producing furniture that is nature-friendly both on the inside and outside.

- Enex Marketing Team leader

동화가족들이 전파하는 긍정 에너지

Positive Energy Spread by the Dongwha Family

‘핵심가치-행복한 동행’ 독서통신 과정 2개월차 학습 도서인 <에너지버스2>. 이 책에서는 인생이라는 버스의 운전사가 되어 열정 가득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 실천해야 할 몇 가지 규칙들을 담고 있다. 삶과 일터를 좀 먹는 불평불만과 작별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 인생의 주도권을 갖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에너지버스에 함께 타야 하는 이유다. 주변사람들에게 불평의 기운 대신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기 위해 <에너지버스2>에서 제안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동화가족들의 경험담에 비추어 소개한다.

Jon Gordon’s book “The No Complaining Rule” was selected for the “Core Values - Happy Journey” book club. The book states several rules people should observe to lead a passionate life and become the drivers of their “buses” called “life.” Removing habitual complaints out of everyday life and taking the initiative through positive thinking are just a few reasons you should get on your “energy bus.”

1. 선물을 발견하라

- 얼마 전 직장을 그만 두신 부모님께서 아내와 아들 하나인 우리 집으로 들어 오시게 되었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일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결혼한 지 2년도 채 안된 상황이라 집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아내는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며 부모님께서 아들을 돌봐주시니 감사하고, 또 가족이 모여 사니 서로 사랑을 느낄 수 있어 여러모로 좋다고 했다. 부정적이었을 상황을 긍정적인 선물로 받아들이는 아내를 보며 부끄러워졌다.

2. 밝은 면을 보라

- 가끔 아내의 일이 늦게 끝나면 혼자 밥을 먹어야 할 때가 있다. 물론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지만, 그래도 기러기 아빠가 아픔을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기러기 아빠였다면 맛있는 밥을 내가 직접 차려야 했을테니 말이다.

3. 폭넓은 관점을 가져라

- 직장선배가 기계고장에 대한 조치방법을 알려 준 적이 있다. 다음 날 똑같은 현상으로 고장이 나 선배가 알려준대로 조치를 취했는데, 내게 맞는 방법이 아니었던지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번거롭지만 나만의 방법을 찾아 연구한 결과 빠르고 편리한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정해진 길에 안주하기보다는 시야를 넓혀 다른 길을 찾는 노력이 있다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4. 위기가 아니라 기회에 집중하라

-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아 현재 우리 회사에서는 전사적으로 낭비와 불합리를 개선해 경비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개선의 기회는 많다. 지금이야말로 낭비와 불합리를 없애 경비절감 효과를 극대화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5.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쳐라

- 몇 년 전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사업이 힘들어 가족까지 흩어져 사는 어려운 친구였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 친구를 멀리 했지만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하니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 위로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친구는 재기에 성공했고 빌려주었던 돈까지 갚았으며 지금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 행복 바이러스, 웃음 치료사, 신나는 이박사 등등 주변에는 보기만 해도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다. 개인적으로 개그맨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 본다. 병을 고치는 의사 또한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겠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는 개그맨 또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두 아이의 아빠로, 한 여성의 남편으로 그들만의 개그맨이 되고자 한다. 🌱

1. Find the Gift

- My parents recently moved into my house after quitting their jobs. I was worried about how my wife would feel about the situation. But my wife said it was the right thing to do, adding that living in a big family is good in many ways. I was grateful to my wife for accepting a situation that could have been stressful to her.

2. Look at the Bright Side

- Sometimes when my wife comes home late from work I have to cook dinner for myself on my own. Though eating alone is not fun, I am always grateful that I am not one of those fathers whose wife and children are abroad because of education. If I were one of those fathers, I would have had to eat alone all the time.

3. Zoom-focus

- A senior coworker once taught me how to fix mechanical devices. But when I tried to fix a broken machine using the method my co-worker taught me, it did not really work for me and took me longer than usual. After that, I discovered my own convenient way to fix things, though that took me a while. We can expand our horizons if we just try to become more open-minded instead of being complacent with our status quo.

4. Focus on the Opportunity, Not the Challenge

- Dongwha strives to save costs by eliminating wasteful and irrational practices on a company-wide level in order to ami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is is also a chance to seize opportunities that the current crisis might present to us. I believe now is a crucial time to turn the crisis into an opportunity.

5. Be a Positive Influence on Others

- A few a years ago I lent money to my friend who was going through rough times. Because of his financial problems, he had to live separately from his family. His other friends became estranged from him while I



continued to console him, telling him that he was young and healthy and therefore could get back on his feet very soon. Since then, my friend has successfully resolved his financial difficulties, reunited with his family and paid me the money he had borrowed from me.

- There are many people who make you smile, including smile therapists. But who can do this job better than comedians. There is no doubt that doctors, who cure diseases, are remarkable people, but I believe that comedians are as remarkable, because they give laughter and hope to people. As a husband and father of two, I want to be a comedian for my family to make my loved ones smile. 🌱

만화로 보는 ‘불평금지의 원칙’ 불평 · 불만, 이렇게 바꾸자



Saying ‘But’ Before Complaining



Manager Park, whose nickname is “the Complainer,” complains today yet again.
Employee 1 : Oh no! It’s Director Park, the Complainer.
Employee 3 : I feel depressed when he’s around.
Employee 2 : Let’s leave before he starts complaining in front of us.



Park : It took me an hour to get to work because of traffic.
I’m getting gray hairs because of stress. Employees’ negative state of mind leads to poor results. Grumble, grumble...



Kim : Good morning Mr. Park, the Complainer.
Park : Who are you calling the Complai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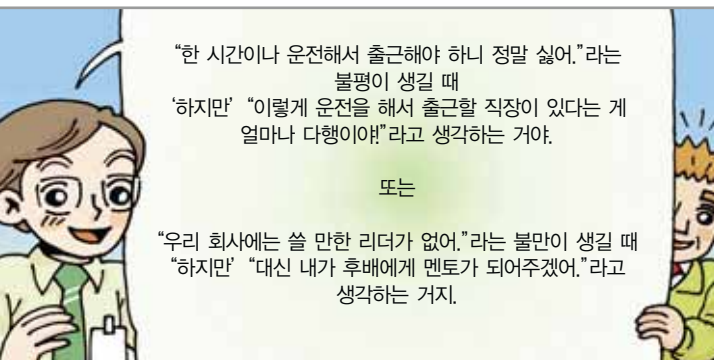
Kim : Didn’t you know that your nickname was “the Complainer”?
Park : I have my reasons to complain. Grumble, grumble..



Kim : I’m not saying complaining is bad. But you should refrain from complaining without any particular reason.
Park : Complaining has become a habit that dies hard.



Kim : Try to quit that habit using the “but” technique.
Park : The “but” technique?



Kim : When you feel like complaining about your long commute, tell yourself, “But I am so thankful for having a workplace to drive to.”



Park : So, you mean I should say the word “but” when I feel like complaining?
Kim : That’s right. Try to think positively.



Thinking of Your Duties as Your Blessings



Director : Don’t forget about volunteer work this weekend.
Employees : Okay. (The majority smiles.)



Deputy Manager Lee: I guess I’ll have to go since I have promised. (sighs)



Lee : I think I’ll have to work extra hours. (sig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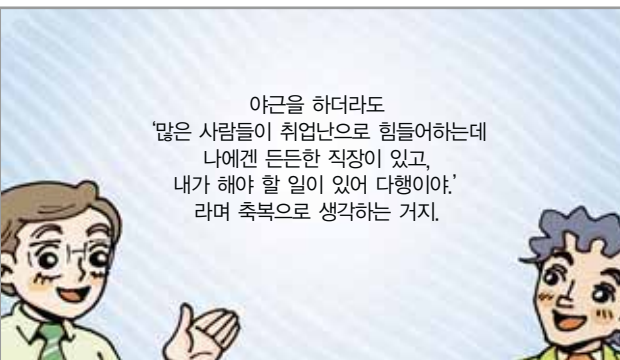
Lee : How should I celebrate my wedding anniversary this year?
Director Kim: Seems like you’re not happy about that.



Lee : (chuckles) Not really, I just find myself complaining.
Kim : Everybody feels pressured when they feel they have to do something.



Kim : When you think of something as an obligation, you feel burdened. But if you think of it as a blessing, then you start feeling content.
Lee : Obligations vs. blessings?



Kim : For example, volunteering can be a blessing if you think of it as a way to help those in need.



Lee : So my wedding anniversary is a blessing because I have a loving family?
Kim : That’s right. Be grateful for being able to do something instead of agonizing over it as your “obligation.”

글
손일준 (동화홀딩스 경영혁신팀 대리)
By Son Il-jun, Assistant Manager, Management
Innovation Team, Dongwha Holdings

동화인이 알아야 할

제안제도와 5S TOP 진단의 모든 것

제조회사들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사내에 고유의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동화는 2002년까지 아이디어 제안을 기준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였고, 2003년부터는 실시 제안으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모든 제안활동이 개인의 '문제해결' 위주로 운영되어 '목표달성'을 위한 소집단활동은 미흡했다. 따라서 이번 <나무동화>에서는 2009년부터 많은 부분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화의 제안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5S TOP 진단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업 환경과 제안제도

■ '제안'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응

제안제도는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발빠르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각 기업마다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의 지혜를 모아 기회를 선점하려는 제안제도의 추세를 살펴보자.

첫째, 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이디어' 제안과 '실시' 제안을 병행 운영하여, 신속히 활용되어야 할 제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프로젝트성 소집단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프로젝트 성격의 소집단활동을 통해 '개인' 제안에서 '조직공동' 제안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조직적 활동을 통해 더 빨리 효과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려는 것이다.

셋째, 심사 리드타임이 단축되고 있다.

제안에 대한 심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안등급을 간소화하고, 평가심사표를 즉결식 심사형태로 전환하여 제안이 신속하게 기업 활동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실정에 맞는 포상 형태로 바꾸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포상금은 제안제도를 복잡하게 만들며 포상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적절한 포상금으로 현실에 맞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고, 기존의 금전적 동기부여에서 비금전적 동기부여로 포상 내용을 바꾸고 있다.

위의 4가지 제안제도 트렌드를 한 문장으로 종합해 보면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신속히 발굴하고, 소집단활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빠른 성과를 창출하며, 즉각적인 심사를 통해 빠른 포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 동화의 제안제도, 이렇게 바뀐다.

첫째, 소집단활동을 통해 빠르게 성과를 창출한다.

기존의 개인 제안활동과 함께 소집단활동을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빠른 성과 창출을 달성한다.

둘째, 제안등급을 간소화하고 현장관리자의 심사 능력을 향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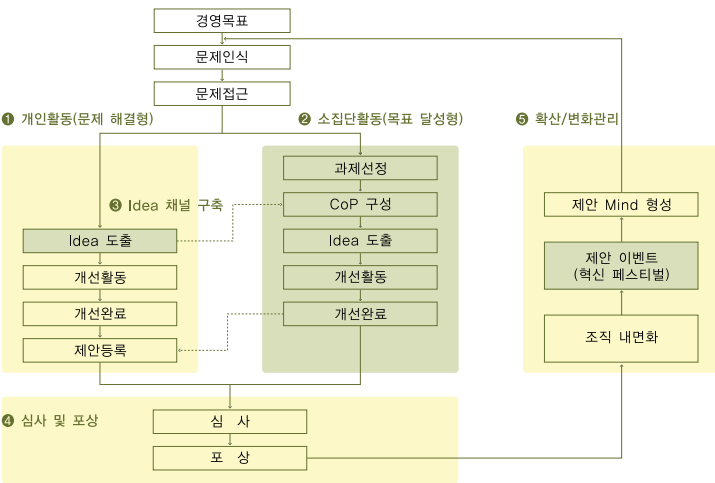
기존의 5단계 등급을 3단계 등급으로 간소화하고, 기존의 심사표를 없애는 대신 경험방식으로 전환하여 빠른 심사가 가능하게 하였다. 또, 제안에 대한 1차 심사를 기존의 사무관리직에서 현장관리자로 이양하여 현장 관리자의 심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개인포상에서 팀 단위 포상으로 변경한다.

기존의 제안에 대한 포상으로 지급되었던 마일리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나, 기존의 상급제안에 대한 사후관리는 없애고 연말에 실시하는 경영혁신 페스티벌을 통해 팀단위의 포상으로 전환한다.

제안제도의 목적은 임직원이 자신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식을 갖도록 하고, 업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고취시키는 데 있다. 회사에서 훌륭한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개인과 회사의 성장을 위해 모든 동화인이 제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진취적 기업 문화가 활짝 꽃 피우기를 기대한다.



[동화 제안제도 Framework]

5S TOP 진단

우리 동화는 전 임직원이 참여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해 온 5S TOP 진단을 2008년 하반기부터 현장경영의 일환으로 매월 실시하는 '월간 프로세스 진단'과 '사무직 5S 활동',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연말 5S TOP 진단'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진단 활동에 대해 알아보자.

■ 월간 프로세스 진단

제조현장의 정리·정돈·청소·정결 활동이 어느 정도 현장에 정착되고 생활화되었다고 경영진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관점에서, '표준 프로세스 준수를 통한 업무낭비 제거'를 목표로 프로세스 단위로 월간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월간 프로세스 진단은 다음 3가지 관점에서 진단이 이루어진다.

- ① 표준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는가?
- ② 표준 프로세스가 잘 준수되고 있는가?
- ③ 명확한 목표관리와 실적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낭비요인을 바로잡아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사무직 5S 활동 전개

제조현장 중심의 5S활동을 2009년부터 사무직까지 확산 운영하고 있다. 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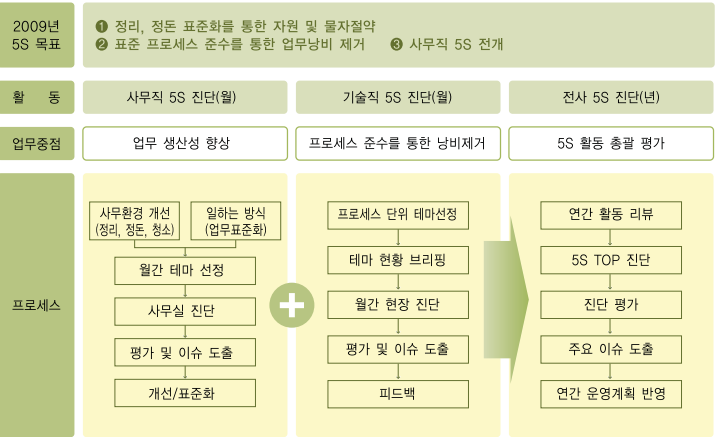
구 분		진단 테마
2008년	5월	동화자연마루 생산/출하 프로세스
	6월	동화기업 PB 원재료 입고/생산/출고 프로세스
	9월	동화케미칼 생산/물류 프로세스
	10월	저장자재 및 물류 프로세스
	11월	2008년 전사 5S TOP 진단
2009년	12월	출고 및 창고관리 프로세스
	1월	설비관리 프로세스
	2월	품질관리 프로세스
	3월	구매관리 프로세스(1차)
	4월	구매관리 프로세스(2차)
	5월	생산관리 프로세스(예정)

[월간 프로세스 진단 내역]

직 5S활동은 '사무환경 개선'과 '업무효율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로 추진한다. 첫 번째 사무환경 개선은 ①불필요한 사무비품의 정리 ②문서의 보관 및 보전 ③공용비품·기기·공간의 효율화에 주안점을 두고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두 번째 업무효율의 개선은 ①문서의 표준화(한 사람이 만든 것 같은 문서) ②업무의 표준화(프로세스로 운영되는 명확한 업무) ③커뮤니케이션 및 회의체제의 효율화에 주안점을 두고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5S TOP 진단

동화 전임직원이 참여하는 5S TOP 진단은 연말에 1회 시행한다. 이를 통해 동화의 연간 5S활동을 점검하며, 전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임직원과의 현장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현장경영을 실천하게 된다. 🌱



[2009년 5S TOP 진단 체계]

All About Dongwha’s Idea-Sharing System and 5S Top Evaluation

Many companies, including manufacturing ones, have their in-house idea-sharing systems. Until 2002, Dongwha’s idea-sharing system was centered on just submitting ideas. But in 2003, its focus shifted to proposing ways to execute ideas. Efforts to achieve a certain goal through group activity were insufficient as many ideas centered on problem-solving. Accordingly, this edition of Green Dongwha Magazine has taken a look at Dongwha’s idea-sharing system and 5S Top evaluation activities.

Dongwha’s Idea-sharing System

■ Idea-sharing Systems as Business Trend

1. Mixed System

By simultaneously managing the submission and execution of ideas, an organization can swiftly implement employees’ creative ideas at any time.

2. Small Groups

Submitting ideas through small groups rather than doing so individually is becoming the main trend. Its objective is to create results fast through organizational activity.

3. Reducing Deliberation Lead Time

By streamlining idea assessment and swiftly reviewing assessment reports, the time spent on deliberating suggestions can be drastically cut.

4. Motivating with Appropriate Rewards

Appropriate rewards can serve as a key motivation in an organization while excessive rewards can complicate idea-sharing. More and more companies opt for nonfinancial means of motivation instead of financial ones as rewards.

In summarizing the four idea-sharing systems mentioned above, an organization should swiftly collect employees’ creative ideas and produce fast results through small groups. Then, it should grant rewards after swift deliberation.

■ Changes in Dongwha’s Idea-sharing System

Until 2002, Dongwha’s idea-sharing system was centered on just submitting ideas. But in 2003, its focus shifted to proposing ways to execute ideas. Efforts to achieve a certain goal through group activity were insufficient as many ideas centered on problem-solving.

Starting from 2009, Dongwha’s idea-sharing system will be operated in the following manner:

1. Swiftly creating results through small group ac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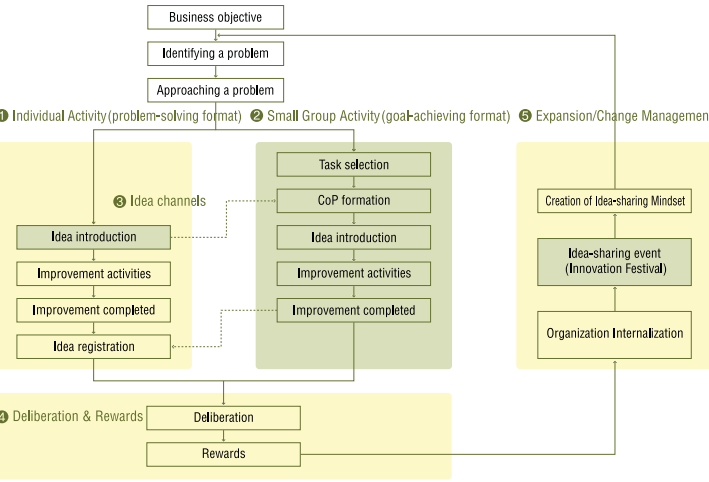
By systematically supporting the introduction of ideas by both individuals and small groups, Dongwha will seek to yield results fast.

2. Overhauling idea assessment and enhancing assessment ability of on-site managers

By overhauling the five-stage idea assessment system into a three-stage one, Dongwha has drastically reduced the time of deliberation of submitted ideas. Moreover, on-site inspections have helped managers significantly improve their assessment capabilities.

3. Rewarding teams instead of individuals

While rewarding individuals with points for their suggestions, Dongwha will also give rewards to teams for their ideas at the end of the year during the company’s business innovation festival.



[Dongwha’s Proposal System Framework]

The main goal of idea-sharing systems is to encourage employees to get actively involved in their duties and hone their skills. Whil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good idea-sharing system, it is equally important to inspire employees and the organization as a whole to share ideas. Let’s hope all Dongwha employees will take part in this initiative.

5S TOP Evaluation

The 5S TOP evaluation, which was conducted twice a year, is now carried out only once a year, at the year-end, along with monthly process evaluations and office workers’ 5S activities.

■ Monthly Process Evaluations

Dongwha’s monthly process evaluations aim to remove unnecessary duties through observing standard processes. The purpose of evaluations is to check whether activities involving organizing and cleaning are well established on manufacturing sites.

The criteria of monthly process evaluations are as follows:

- ① Is there a standard process in place?
- ② Is the standard process effectively observed?
- ③ Is the standard process operated with a clear objective?

The evaluations seek to ferret out any unnecessary work procedures and remove them to maximize work efficiency.

Category		Evaluation Theme
2008	May	Dongwha Nature Flooring - Production/Shipping
	June	Dongwha Enterprise - PB Raw Materials Warehousing/ Production/ Shipping
	September	Dongwha Chemical - Production/Logistics
	October	Material Storage & Logistics
	November	2008 5S TOP Evaluation
	December	Shipping & Storage Management
2009	January	Facility Management
	February	Quality Management
	March	Purchase Management (1 st Round)
	April	Purchase Management (2 nd Round)
	May	Production Management (Prearranged)

[Monthly Process Evaluations]

■ Office Workers’ 5S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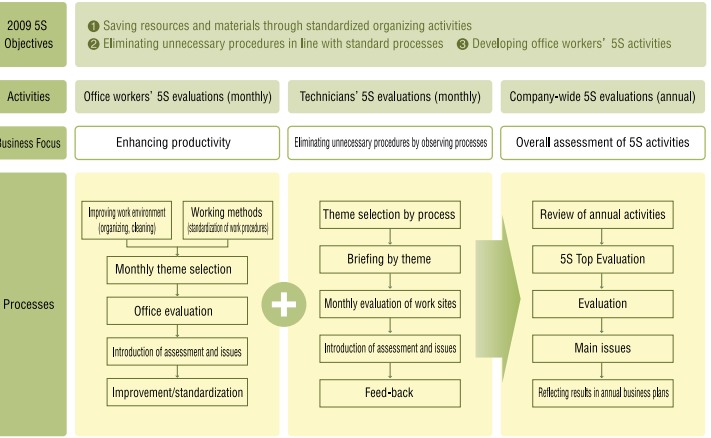
The 5S activities, which used to be centered on manufacturing sites, will be expanded to office workers from 2009. Office workers’ 5S activities will pursue two objectives: improving the work environment and enhancing business efficiency.

To improve the work environment, Dongwha will: 1) remove unnecessary office supplies; 2) store and preserve documents and 3) enhance the efficiency of supplies, equipment and space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To enhance business efficiency, Dongwha will: 1) standardize documents; 2) standardize business processes and 3) enhance the efficiency of communication and organization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 5S TOP Evaluation

The 5S Top Evaluation, which involves all Dongwha employees, will take place at the end of the year. With the evaluation system, Dongwha will review the 5S activities of the past one year, conduct on-site rounds, boost employee morale through communication, and identify areas that need improvement. 🌱



[2009 5S TOP Evaluation System]

고운 꿈 꾸게 하는 사랑의 손길

A Loving Hand that Makes Sweet Dreams

〈시공 후〉

한낮에도 어두웠던 한길지역아동센터는 이제 화사한 개나리 색 벽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강화마루 시공 덕분에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시공 전〉

한길지역아동센터 이정자 교사는 열악한 학습환경으로 인해 이곳을 찾는 아이들의 건강이 항상 걱정되었다고 한다.

‘까르르르~ 나 잡아 봐라~’

서울 이문1동에 위치한 한길지역아동센터에는 최근 들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자주 터져 나온다. 지금은 여느 사설학원 부럽지 않은 아늑한 학습 공간이지만 불과 2월 초만 해도 지금과 같은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었다. 이정자 한길지역아동센터 교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과 지역아동센터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기쁨 뽐냈지만, 한편으로는 열악한 학습 환경으로 인해 자주 속상했다”고 말했다.

이런 한길지역아동센터에 한 줄기 빛이 찾아들었다. 서울 시내 어린이 사회복지시설에 마루를 무상으로 시공해주는 동화자연마루의 ‘사랑의 마루 기증 프로젝트’에 두 번째 수혜 시설로 선정되면서 센터 내 공부방 33㎡에 친환경 강화마루 ‘플로렌’이 시공된 것이다. 한낮에도 어두웠던 센터 안은 마음까지 화사해지는 개나리 색으로 변모했고, 바닥은 세련되고 고급스런 강화마루가 시공되었다. 아름다운 미관은 아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선사했다.

‘나눔’이라는 소중한 씨앗을 뿌린 동화자연마루의 ‘사랑의 마루 기증’ 캠페인은 아이들에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지원하며 이들이 소중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Catch me if you can!” Recently, laughter can often be heard at the Hangil regional children center in Imundong, Seoul. The facility features a cozy atmosphere often seen in private facilities. But such a warm atmosphere was hard to even imagine in early February. Lee Jung-ja, a teacher at the center, says though she was content with being able to spend time with kids who needed attention and care, she had always been upset about their poor learning environment.

Then a ray of light shined on the child center one day when it was chosen as the second beneficiary of Dongwha Nature Flooring’s project to donate free flooring. Dongwha volunteers rolled up their sleeves to install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laminate flooring “Flollen” in the 33 square meter study room of the child center. Ms. Lee says the flooring brought a sense of emotional stability to the children, adding that the comfort the children felt was quite visible. 🌱

글

김윤진 (동화리소시즈 원재료기획팀 차장)

By Kim Yoon-jin [Deputy Manager /

Raw Materials Planning Team / Dongwha Resources]

배려와 이해에서 글로벌 동화가 시작됩니다

A Global Dongwha Begins
from Consideration and Understanding



동화의 해외 생산거점 가운데 최대 규모인 말레이시아. 동화의 세계화 전략이 수립되고 실행되는 최일선 지역이다. 그곳에서 1년 8개월 간 근무한 김윤진 동화리소시즈 원재료기획팀 차장을 만나 세계 속의 동화가 이루어지는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Malaysia, one of Dongwha’s largest overseas production bases, is where Dongwha’s global strategies are most actively designed and implemented. Kim Yoon-jin, the deputy manager of Dongwha Resources’ Raw Materials Planning Team, recently returned to South Korea after working in Malaysia for 20 months. He shared his stories of being part of a global Dongwha.

말레이시아 자회사(DFB, DCM, DMM)의 원재료기획팀에서 해외 파견근무를 마치고 최근 복귀한 김윤진 차장. 보드(PB, MDF)의 원재료 수급과 수요 예측 업무를 하는 김 차장에게 다양한 형태의 구매 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말레이시아에서의 근무는 업무 전문성과 식견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또한 동화가 추진하는 ‘글로벌 동화’를 경험한 뜻 깊은 시간이었다.

김 차장이 내세우는 ‘글로벌 동화’의 실천 방안 중 하나는 ‘배려’다. 동양문화권이자 이슬람문화권, 다인종·다언어 사회라는 여러 특징이 혼재돼 있는 말레이시아에서는 무엇보다 상호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현지어를 배워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것이다. “출근 때마다 ‘살라마 파기(Salamat Pagi · 바하사 말레이시아어로 ‘안녕하세요’라는 의미)’라고 아침인사를 건네요. 기본적인 회화를 구사하기 위해 바하사 말레이시아어를 배웠는데, 이 점이 현지 직원들에게 다가가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상대방의 언어와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야말로 현지 직원과의 문화적 간극을 좁히는 길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김윤진 차장. 그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면서 세계 속의 동화를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들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본다. 🌱

To Mr. Kim, who was in charge of assessing the supply and demand of raw materials for PBs and MDFs, working in Malaysia was an opportunity to expand his expertise.

Mr. Kim says consideration is one of the best ways to globalize Dongwha. He says mutual respect and consideration are essential in Malaysia, a country with a multiracial and multilingual society.

He also says learning the local language helps expand the scope of mutual understanding. “Every morning when I went to work, I always greeted people by saying ‘Salamat Pagi’, which means good morning in Malay. I learned the Bahasa language, which is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country, to be able to hold basic conversations. I think that really helped me bond with the local employe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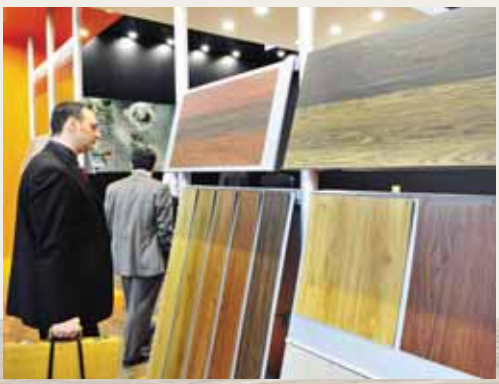
Mr. Kim stresses that being respectful and having the determination to learn more about foreign languages and cultures are the key to bridging cultural gaps. Dongwha’s talented employees, such as Mr. Kim, hold unlimited potential for making Dongwha a truly global company. 🌱

국제 전시회 ‘하노버 도모텍스’와
‘하임 텍스틸’을 통해 본 2009 바닥재 트렌드

온화한 자연의 텍스처로 감성 자극하는 2009 바닥재 트렌드

2009 Flooring Trend : Texture of Gentle Nature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바닥재 전시회 ‘2009 하노버 도모텍스’



올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리빙 스타일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 가운데 세 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바닥재 전시회인 ‘하노버 도모텍스(Hannover Domotex)’와 국제 홈 텍스타일 전시회인 ‘하임 텍스틸(Heim textil)’은 무엇 보다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같은 내추럴리즘은 바닥재와 패 브릭, 벽지에도 고스란히 전해져 어떤 것으로도 규정되지 않고 경계를 넘나드 는 상상력과 함께 순수하고 본질적인 것으로의 회귀를 이야기한다.

‘2009년 도모텍스 하노버’에 참가한 유럽의 주요 회사들은 자연이 느껴지는 컬러와 질감을 내세우고 있다. 정제되고 순수한 것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분위 기는 바닥재를 포함한 인테리어 자재가 더욱 자연에 가깝도록 유도하는 것이 다. 따뜻한 느낌의 원목이 편안한 휴식을 제안하고 감성을 불러넣는 역할을 한 다. 색상은 전반적으로 화사하고 밝은 톤에 나뭇결이 충분히 살아있는 질감 을 선호함으로써 심플하면서도 절제된 세련미가 트렌드를 형성한다.

동화자연마루는 올해 트렌드보다 앞서 ‘심플 앤 내추럴’을 기본으로 모던하고 우아한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 화이트 톤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채도의 컬러

와 부드러운 나뭇결 패턴이 단순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자연 소재의 무한한 상상력 자극

2009년 하임 텍스틸은 자연 소재를 적극 이용한 내추럴리즘과 함께 상상을 초월한 소재, 컬러와 디자인으로 초현실적인 미래를 보여 주었다. 벽지나 패 브릭 등의 제품들은 어느 하나의 이미지에 귀속되기보다는, 상상력을 기반으 로 믹스 앤 매치함으로써 기존의 일차원적인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은 새로운 아 이디어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자연에 대한 관심은 내추럴리즘의 변화를 가져 와 나무, 돌, 식물 등 자연 그대로의 요소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으로 이어지 고 있다.

어느 한 가지 테마로 규정지을 수 없는 올해 인테리어 트렌드는 모든 라이프 패턴을 집합시켜 놓은 듯 광범위한 스타일을 제시한다. 그 안에서 패션과 인테 리어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아이템들은 편안하고 감성적인 느낌의 컬러와 소재 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



The financial crisis that has hit the globe has brought about changes in living style. Amid such changes, Hannover Domotex and Heimtextil have proposed that all living styles refocus on nature. The two exhibitions featured naturalism embedded in flooring, fabrics and wall paper, using the abundance and purity of nature.

The products from renowned European companies that participated in the 2009 Hannover Domotex, which is the most influential flooring exhibition, featured colors and textures in which nature was alive.

The creation of refined and pure decor requires materials, including flooring, that resemble nature. Wood, with its warm nature, provides a comfortable respite and stirs emotions. Wood of bright colors and visible grain looks simple yet sophisticated and is closest to nature.

To stay ahead of the trend, Dongwha Nature Flooring pursues a modern

and refined style based on “simplicity and naturalness.” It centers on warm colors, mainly the color white, and smooth wood patterns to create a simple yet secure atmosphere.

Triggering Infinite Imagination of Natural Materials

The 2009 Heimtextil put on display a surreal future based on naturalism as well as materials, colors and designs beyond one’s imagination. Wall papers and fabrics, among other products, were not confined to one image but instead were mixed and matched based on infinite imagination. In particular, the recently rising interest in nature led to the creation of designs that were inspired by objects in their natural state such as trees and rocks.

This year’s flooring trend is not confined to one particular theme but offers a wide array of styles and patterns. Styles that feature comfortable and delicate colors and materials enjoy the highest popularity. 🌿

친환경 보드 수지 개발로 녹색 시대를 열어간다

Ushering in Green Era with Eco-Friendly Bo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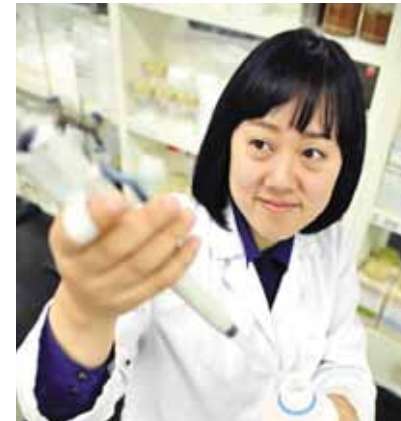
동화기업 부설연구소 수지연구팀은 동화의 환경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다. 동화기업이 지난 해 국내 최초로 프리미엄급 친환경 보드를 자체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연구 인프라가 뒷받침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수지연구팀은 친환경 수지 개발 연구에 매진하여 가구업계의 녹색 물풍을 이끌고 있다.

Dongwha Enterprise's Resin Research Team played a key role in expanding Dongwha's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Thanks to the Team's infrastructure, Dongwha Enterprise was able to produce the nation's first premium, eco-friendly boards last year. Now, the team is seeking to develop nature friendly resin as part of its efforts to usher in a "green era" in the furniture business.



수지연구팀은 동화기업의 간판격인 MDF, PB, HDF 등에 쓰이는 수지 개발과 외판 제품의 개발 업무를 하고 있다. 2008년 6월 기존의 보드수지연구팀에서 보드연구팀과 수지연구팀이 분리되며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보드연구팀이 현장 시생산과 현용 수지 개선에 중점을 둔다면, 수지연구팀은 근본적인 수지 합성 원리를 연구하고 분석기기를 통해 원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윤철 팀장을 비롯해 이태수 과장, 궤인영 대리, 윤세화 대리 등은 친환경 보드용 수지 개발을 혁신과제로 추진하여 생산성과 원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수지연구팀은 분석기기 활용 능력과 분석 해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아울러 연구 업무 특성에 걸맞게 각자 맡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도 프로젝트에 따라 원활하게 합동 연구를 하며 중지(衆智)를 모으기도 한다.

2009년 제61주년 창립기념식 때 'New Wood Innovator'상을 수상한 궤인영 대리는 우수사원 수상은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궤 대리는 PB Scavenger 개발로 예코 투입 제조원가를 절감하고 PB 생산의 안정화에 기여했으며, Suprer E0 PB 수지를 개발해 양산 체제 확립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보통 보드 판재 재료인 나무 섬유나 목재 칩을 압축시켜 굳히는 과정에서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데, 그 성분에 따라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물질의 발생 정도가 결정된다. 실내용 자재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일정량을 넘어서면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켜 최근 들어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화는 이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난해에 최상위의 친환경 등급인 Super E0 PB 수지를 개발한 데 이어 올해부터 상품화를 실현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성과 뒤에는 묵묵히 친환경 수지 개발에 신명을 바쳐온 연구원들의 부단한 연구개발 노력이 있었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건강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수지연구팀원들. 이들은 기본에 충실한 연구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탄탄한 상호 협력 체제하에 동료애를 발휘하며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아름다운 꿈과 열정이 친환경 기업의 선두주자 동화를 만들어가는 바탕이리라. 🌱



동화기업 부설연구소 수지연구팀의 꿈과 열정이 친환경 기업 동화를 만들어 가는 힘이다.

The team is dedicated to developing outside plates and resin used in MDFs, PBs and HDFs. In June 2008, the board and resin research team was split into two. While the Board Research Team focused on improving resin that was already in use, the resin research team centered on analyzing the structure of resin.

The leader of the team, Shin Yoon-chul, and its members -- Lee Tae-soo, Kwack In-young and Yoon Se-ha -- are spearheading efforts to boost productivity and cost competitiveness by setting the development of resin as their key innovation task. Soon after its launch, the team began focusing on enhancing its analyzing ability and use of analytical devices. All of the members have acquired know-how after years of experience in the area. The team members effectively carry out individual projects while also taking part in group projects, creating a family-like atmosphere at their research institute. Corporate culture is created when members meet freely whenever an issue arises instead of holding prescheduled meetings. When anyone in the team faces difficulties in research, the other members provide them with all-out support.

The team's deputy manager, Kwak In-young, who received the New Wood Innovator reward at the ceremony marking the 61st anniversary of

Dongwha Holdings' founding, attributed her award to her teammates. Ms. Kwak contributed greatly to cutting manufacturing costs and stabilizing PB produ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PB scavengers. She also helped develop the Super E0 PB resin.

Adhesives are usually used when solidifying compressed wood fiber or wood chips. The emission levels of harmful materials, such as formaldehyde, are determined by components contained in adhesives. When a certain furniture material emits more formaldehyde than permitted, the material can cause respiratory disorders. The government is stepping up efforts to regulate emission levels.

In line with environmental concerns, Dongwha developed last year the eco-friendly Super E0 PB resin and successfully commercialized it this year. That was possible thanks to the efforts of the resin research team. Deputy Manger Kwak, who joined Dongwha in 2004, focuses her efforts on developing boards that emit zero formaldehyde.

The resin research team, which is dedicated to developing harmless products, generates synergistic effects through strong cooperation and efforts to bolster research. Such passion and endeavor are the factors that make Dongwha a genuinely green company. 🌱

자신의 한계를 넘어 하나가 된 동화인들

Dongwha Employees Overcome Limits to Become One

동화를 대표하는 28명의 구릿빛 마라토너들이 지난 3월 29일 문학경기장 일대에서 열린 인천국제마라톤대회를 수놓았다. 최근 높아진 마라톤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일반인들의 마라톤 참가가 현저하게 늘어난 가운데, 동화인들도 당당히 마라토너 대열에 동참한 것이다.

경기 개막 전인 오전 8시 무렵부터 마라톤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동화자연마루 부스에 모습을 드러냈다. 배변을 달고 러닝화에 칩을 부착하는 등 꼼꼼히 준비를 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에서 가벼운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박갑홍 스포츠센터 트레이너가 일찌감치 나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몸 풀기 스트레칭을 지도하는 한편, 코스 중 페이스 조절 등의 전문적인 조언을 건넸다. “마라톤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게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칫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 오버페이스를 범하기도 하는데, 완주하려면 마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무척 중요해요.”

오늘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동화가족 가운데 눈에 띄는 마라톤 커리어를 가진 사우로는 단연 김도영 기술주임(동화기업 아산MDF공장)이 손꼽힌다. 이번 대회 전까지 ‘서브쓰리(Sub-3/42.195km를 3시간 내에 완주하는 것)’를 무려 11번이나 달성한 고수 중의 고수. 2002년부터 마라톤을 시작했다는 김도영 기술주임의 오늘 목표는 풀코스 완주를 넘어 2시간 50분대의 기록을 세우는 것이다.

이번 마라톤대회에 출전하는 동화가족들은 부스에서 대기하는 동안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동화인이라는 동료애와 마라톤이라는 같은 취미를 가졌다는 공통점으로 인해 서먹한 분위기가 금세 화기애애해졌다. 서로 친근하게 눈인사를 하고 “끝까지 완주합시다”라는 파이팅을 건네면서 웃음꽃도 피어났다.

동화인들은 이번 마라톤 완주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새로운 도전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에너지를 얻었을 것이다. 이러한 힘과 저력이 동화를 하나로 결집시키고, 2013년 새로운 비전을 달성시키는 데에 초석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회사 동료·가족들과 함께한 마라톤대회라서 더 의미가 깊다는 동화가족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완주를 위해 “파이팅!”을 외쳤다



미니 인터뷰

정승관(동화기업 보드경영컨설팅팀 차장) | 10km 출전 | “혼자 운동하는 것도 매력적이지만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세운 약속을 지켰으면 합니다. 10km 완주가 그 중 하나이고, 중간에 걷지 않는 것이 다른 하나이죠. 오늘 10km 코스를 가뿐히 달성하고, 내년엔 하프코스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김도영(동화기업 아산MDF공장 기술주임) | 풀코스 출전 | “마라톤은 제 취미 이상의 자기 성취와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포기하고 싶은, 정말 딱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찾아와도 그 고비만 잘 넘기면 무엇보다 값진 결실을 얻을 수 있거든요. 2시간 50분대에 진입하는 것이 오늘 목표예요. 날씨도 좋고, 컨디션도 괜찮은데 꼭 달성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김상윤(대성목재 PB공장 기술사원) 가족 3인 | 5km 출전 | “중3 아들, 아내와 함께 참가했습니다. 오늘을 대비해서 러닝머신에서 여러 차례 실전에 가까운 준비를 해서 전 괜찮지만, 아들이 걱정이에요. 지금 중3이라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충분한 훈련을 하지 못했거든요.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끝까지 달리자!”

이호욱(동화자연마루 강화마루공장 사원) | 10km 출전 | “마라톤을 통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얻고 제 한계점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참가했습니다. 마라톤대회 참가는 처음이지만 평소 농구와 축구를 꾸준히 해왔던만큼 체력적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10km 완주를 자신합니다!”

Dongwha Employees Overcome Limits to Become One

Twenty-eight employees of Dongwha took part in the Incheon Marathon that took place at the Munhak World Cup Stadium on March 29. The event reflected Dongwha members’ rising interest in marathons and healthy living.



Before the race began, the participants gathered at the Dongwha Nature Flooring booth set up at the venue of the marathon around 8AM. Tension was running high as the participants put on their uniforms and attached chips to their running shoes.

Park Kab-hong, who is a sports trainer, helped the participants with their stretching and offered professional advice on finishing the race. “When running a marathon, you should always focus on keeping your pace.”

The marathon runners from Dongwha who stands out the most is Technical Manager Kim Do-young of Dongwha Enterprise’ Asan MDF Factory. Kim is a highly-skilled runner who has completed sub-three-hour marathons 11 times. Being the master runner that he is, Kim seemed more relaxed compared to his coworkers. Having run in marathons since 2002, Kim’s goal for today is to complete the course within two hours and 50 minutes.

The runners representing Dongwha who hadn’t met before bonded quickly as they shared a sense of companionship and enjoyed the same hobby. The runners exchanged words of encouragement and wished one other the best in completing the race.

The Dongwha members went beyond their boundaries by completing the race and gained a new kind of energy that could be used to take on new challenges. Such energy and potential unite Dongwha and lay the foundation for achieving its Vision 2013. 🌱



마라톤 완주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새로운 도전에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은 동화인들. 그들의 힘과 자력이 동화를 하나로 이끈다.

Mini Interviews

Chung Seung-kwan (Deputy Manager, Board Business Division, Dongwha Enterprise)/10km marathon

“Though it is appealing to exercise alone, it was a great experience to run with my coworkers in the race since we shared the same goal of finishing it. I hope I can keep two promises I have made to myself. One is to complete the ten-kilometer course and the other one is not to walk in the middle of the race. I hope to successfully finish the ten-kilometer course today and try completing a half course next year.”

Kim Do-yeong (Technical Manager, Asan MDF Factory, Dongwha Enterprise)/ full course marathon

“Running is more than a hobby for me since it is both rewarding and self-fulfilling. Once you overcome the certain moments you want to give up and quit the race, you get to obtain the most valuable results. My goal for today is to complete the full course within two hours and

50 minutes. I think I can reach that goal since the weather’s nice today and I feel great.”

Kim Sang-yun (Technician, PB Factory, Daesung Wood)/ 5km marathon

“I am taking part in the race with my son and my wife. I prepared for the marathon by exercising on a treadmill, but right now I am worried about my son. He’s in his last year in junior high school and he didn’t have enough time to prepare for the marathon. We’re determined to finish the race to become a healthier and happier family.”

Lee Ho-wook (Laminate Flooring Center, Dongwha Nature Flooring) / 10km marathon

“I decided to participate in the marathon to gain confidence and test my limits. It’s my first time running in a marathon but I have no doubt I’ll do well since I have been keeping fit playing baseball and soccer. I am confident I will finish the ten kilometer race.”



PB2공장 일 생산량 신기록 돌파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원가 혁신 프로젝트의 선봉장이 되다

At the Forefront of Cost Innovation Projects



동화기업 PB2공장이 최근 신기록 행진에 나섰다. 1995년 주력 제품인 18mm 보드(E2) 제품을 첫 출하했을 때만 해도 1일 생산량 400m³로 시작했으나 2007년 454m³, 2008년 466m³에 이어 2009년부터 눈부신 성장세를 보였다. 2009년 1일 생산량 3월 580m³를 돌파하더니, 3월 30일에는 드디어 꿈의 목표인 600m³를 넘어서 601m³를 실현한 것이다. 담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게 된 비결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Dongwha Enterprise's 2nd PB factory has embarked on setting records. The factory, whose daily output stood at 400m³ when it first started delivering 18mm boards in 1995, saw it rise to 454m³ in 2007 and 466m³ in 2008. In March this year, its daily output topped 580m³ before it surpassed the key mark of 600m³ on March 30. What was the key factor behind the feat?

PB2공장은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폐목재를 파쇄한 목재 칩으로 보드를 제조하고 있다. 폐목재는 주로 건축 폐목재와 폐가구재 등을 활용하는데 최근 들어 건설 경기 위축으로 자재 수급이 어려워 폐가구재의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PB2공장은 혁신 활동을 전개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원가 혁신 프로젝트에 따라 칩 성상을 세분화하고 균일화하기 위한 개선 활동에 돌입했다. 이미 2008년 12월 20일부터 전사적으로 비효율적인 로스를 줄이기 위해 각 현장마다 혁신리더를 임명해 개선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다.

또한 PB 생산 공정의 중요한 인자의 하나인 화학 원재료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수지연구팀에서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 및 원가 혁신을 위한 연구에 돌입하였다. PB2공장은 박정제 기술과장이 혁신리더를 맡아 원가 혁신 프로젝트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원가 혁신 활동을 하며 팀원들이 스스로 개선 의지를 갖고 의욕적으로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혼자가 아닌 모두 다 함께 생각이 바뀌어야 함을 끊임없이 인지하고 참여를 유도한 것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지요.”

박정제 리더는 혁신 활동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근무자들의 의식 개선이 바탕이 되었다고 밝힌다. 이들은 소집단 내에서의 활발한 의견 교환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개선 상황을 점검하고 실무자간의 조언을 나

누는 등 수시로 정보 교류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특히 생산량 증대와 품질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삭편 공정의 개선을 위해 중지를 모았다. 삭편 공정은 원재료를 분쇄한 후 칩 성상을 골고루 균일하게 만드는 공정으로 제품의 질을 좌우하는 만큼 체계적인 개선 활동이 필요했다. 순한 시행착오 끝에 세밀하고 균일한 칩 성상을 실현했을 때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쁨을 나누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화학 원재료 부문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을 때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동지의식의 고취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된 분위기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여 PB2공장은 동화기업 내 보드공장의 원가 혁신을 위한 성과 달성에 있어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모든 직원들에게 자신감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파급효과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1분기 내에 1차로 일 평균 601m³ 실현의 위업에 이어 2분기에는 630m³를 목표로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고 있다. “이제 첫발을 댄 셈”이라는 이들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이들은 더 높은 고지도 가뿐하게 넘어설 자신이 생겼다. 한마음으로 뭉치면 어떤 난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성취감으로 날개를 달았기 때문이다. 🌱



The 2nd PB factory produces particle boards using wood chips crushed from waste wood. Recently, the use of waste wood has become increasingly popular as supply and demand of construction materials has faced difficulties due to the slump in the construction sector.

To overcome the obstacles, the factory launched cost innovation activities. In line with a cost innovation project that was kicked off early this year, the factory launched efforts to study and unify the nature of wood chips.

Meanwhile, the Resin Research Team began research on ways to enhance productivity and overhaul costs as part of efforts to increase the production of chemical raw materials, which are indispensable for producing particle boards.

Chief Technician Park Jung-jae took over as the innovation leader for the factory's cost innovation project. “By taking part in the cost innovation activities, it became clear that the team members were working hard to implement change. I think these activities helped us realize that it takes the efforts of all members to create change and make it work.” Park says the change in employees' attitude played the biggest role in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innovation activities. Park says he believes such a change in attitude was the result of efforts to instill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in organization members, who are usually indifferent to change.

After many trials and errors, the members were fulfilled to see their efforts bear fruit in producing wood chips of fine and consistent nature.

Thanks to the cost innovation activities, the team members developed a sense of fellowship and pride when they reaped tangible results in boosting the production of chemical raw materials. Now the 2nd PB factory is taking the lead in cost innovation activities within Dongwha Enterprise. The factory's remarkable performance has boosted confidence of all the other employees as well.

The 2nd PB factory aims to post the daily output of 630m³ in the second quarter of the year. With its first step taken, it is now poised to break past records based on its confidence that it can meet its goals. The factory employees know that when they join their forces, they can overcome any obstacles. 🌱

동화기숙사 급습사건

‘기숙사에서 주말 즐기기’ 진수를 보여준다!

Enjoying Weekends at the Dorm

인천시 중구 북성동에는 동화 사우들을 위한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다. 외형은 여느 기숙사와 다름없지만 실내로 들어서니 여기가 기숙사인지 호텔인지 모를 정도로 럭셔리 그 자체다. 고급스런 마루 바닥재와 최신 오디오·비디오 시설이 설치된 안락한 거실, 독서실, 휴게실, 세탁실 등 공유공간과 1인 1실의 원룸형 개인공간이 있다. 5평 남짓한 기숙실에는 완벽한 냉난방 시설, 편안한 침대와 샤워부스, 넉넉한 수납장과 책상, 소형냉장고, 인터넷 설치 등 없는 것이 없다. 게다가 체력단련실까지 사용할 수 있어 그야말로 남성 사우들의 로망이다.

Dongwha’s employee dormitory is located in Bukseong-dong of Incheon. On the outside, it looks like an ordinary dorm but inside it is reminiscent of a luxurious hotel. The facility has quality wooden floors and a living room equipped with the latest audio and video devices. It also has a reading room, laundry room and gym. Each room, furnished for one person, has an all-around air-conditioning and heating system, a bed, a shower booth, a desk, a small fridge and Internet connection.



동화기숙사 전경

햇살은 창안으로 스며들고, 일주일 동안 미뤄 둔 늦잠이 더욱 달콤하게 느껴지는 어느 주말 아침. 동화기숙사의 꽃남3인방을 자칭하는 박주형 사우(31, 동화자연마루 마루시판1팀), 서석철 사우(30, 동화홀딩스 총무팀), 윤종욱 사우(28, 동화기업 기계팀)는 모두 스윗홈으로 떠난 텅 빈 기숙사에 남았다. 집이 먼 이유도 있지만 기숙사에서도 황금주말을 즐겁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일들이 쏠쏠하기 때문이다. 주중에 각자의 업무에 충실하지만 주말이면 이들 3인방은 대청소, 헬스, 축구, 농구, DVD 빌러보기, 독서 등 셋이놀기의 진수를 보여준다.

마지막 로맨티스트 – 서석철 사우

작년 8월에 발령받아 대전에서 올라온 서석철 사우는 생면부지 낯선 곳에서 막막하고 적적했었다. “주말이면 외로워 혼자 월미도를 거닐다 오기도 했어요. 그러다 기숙사 친구를 사귀었죠. 요즘은 세 사람 주말스케줄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함께 먹고 뛰고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 부서동료보다 더 스스럼없고 편안하다. 서석철 사우는 기숙사에서 이름난 로맨틱 기타리스트. 어지간한 연주는 악보 없

이도 착착 된다. 그래서 무료한 동료들을 위해 가끔 즉석 콘서트를 열어주기도 한다. 또 평소에 꾸준한 독서는 물론 영어공부에도 매진하는 등 자기계발에도 열심이다.

기숙사의 해결사 – 박주형 사우

입사 3년차 박주형 사우(고향 부산)의 입사 에피소드는 모르는 사우가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1차 필기는 통과했지만, 나이는 많고 남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건 열정밖에 없으니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산의 동화자연마루 대리점과 인터넷 30여 곳을 찾아다니며 보고서를 작성했죠. 음료를 사들고 가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인터뷰하고 사진도 찍어 와서 정리했어요.” 면접관의 질문은 예상대로 리포트에만 집중되었고 조사한 내용을 자신 있게 발표했다. 덕분에 돌발질문을 피할 수 있어 무난히 면접에 통과한 것이라고. ‘영업관리’라는 그의 업무는 조직의 손발인 동시에 대리점의 대변인이 되어주는 조율자 역할이다. 그래서 더욱 공정과 공평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심지어 기숙사에서도 사우간의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 각자의 업무를 마치고 기숙사에 돌아오면 서로의 업무도 공유하고 의견도 나누면서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다. 2 농구·축구 등 모든 운동을 좋아하는 운동마니아 윤종욱 사우 3 기숙사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박주형 사우 4 꾸준한 독서와 영어 공부 등 자기계발에도 열심인 서석철 사우

운동동아리 완전정복 – 윤종욱 사우

기숙사의 막내 윤종욱 사우는 동화기업의 모든 기계장치의 설비·유지보수·예방점검을 맡고 있다. “기숙사가 아니면 전혀 문외한인 부서의 업무를 공유할 기회가 없잖아요. 주말에 함께 식사하고 운동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토요일은 농구 동아리, 일요일은 축구동아리에 빠지지 않는 윤종욱 사우는 운동마니아이기도 하다.

꽃남3인방 박주형, 서석철, 윤종욱 사우는 고향도 자신의 업무도 성격도 모두 다르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엘리트가 되겠다는 젊은 열정과 패기만큼은 하나다. 이렇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멋진 3인방은 “일류호텔 부럽잖은 기숙사지만 그래도 여기서 노충각으로 남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활짝 웃으며 입을 모았다. 🌱

On weekends, when other employees have gone back to their homes, three Dongwha employees stay here, not only because their hometowns are far, but also because they can’t wait to enjoy what their dorm has to offer.

The Dorm’s Guitarist : Seo Seok-chul(General Affairs Team, Dongwha Holdings)

Seok-chul says he felt lonely when he was just dispatched to work in Seoul from Daejeon last August. “I would take walks to Wolmi Island on weekends to kill time. But then I met my dorm friends and now I spend weekends mostly with them. They’re like my family rather than just co-workers.” Seok-chul is popular in the dorm for his guitar-playing skills. He spares no effort to further hone his skills by continuously reading books and learning English.

The Dorm’s Mediator : Park Ju-hyeong(Flooring Marketing Team 1, Dongwha Nature Flooring)

Ju-hyeong, who has worked for Dongwha for three years now, is famous for how he joined Dongwha. “Though I managed to pass the first round of exams, I was worried I might not pass the remaining exams because I was older than others applicants and didn’t have particular skills. I only had my passion and wanted to demonstrate it during the interview. I drew up a report after visiting some 30 Dongwha Nature Flooring branches and interior shops. I was able to deliver a confident presentation at my job interview, thanks to the report I wrote.” With business management being his key duty, Ju-hyeong plays the role of a mediator and coordinator, and that’s why he prioritizes fairness.

The Dorm’s Top Athlete : Yoon Jong-wook (Machinery Team, Dongwha Enterprise)

The dorm’s youngest member, Yoon Jong-wook, is in charge of machinery maintenance at Dongwha Enterprise. Being a perfectionist who is always on the lookout for safety accidents, Yoon is the one who inspects the dorm. “Outside the dorm, it’s hard to learn about the duties of other departments, so it’s nice to be able to spend time with people from other teams on weekends.” Yoon is also an ardent sports fan. He plays in Dongwha’s basketball team on Saturdays and in the soccer team on Sundays.

These three young men come from different hometowns and work for different departments but they all share the passion to become the best of the best in their respective areas. They say they are happy to be living in the dorm, but are quick to add that they would not remain old bachelors for a long time. 🌱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사고, 감동에 찬 역사 인식

힘겨운 경기불황의 시기를 곳곳이 이겨 나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동화인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정서적, 정신적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문화생활에 푹 젖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 까요? 동화 가족에게 권하고 싶은 영화와 책, 공연을 사우들의 추천을 통해 소개합니다.

영화 Movies 개에게서 느끼는 따뜻한 가족 사랑 <개와 나의 10가지 약속>
- 동화홀딩스 성과관리팀 김경아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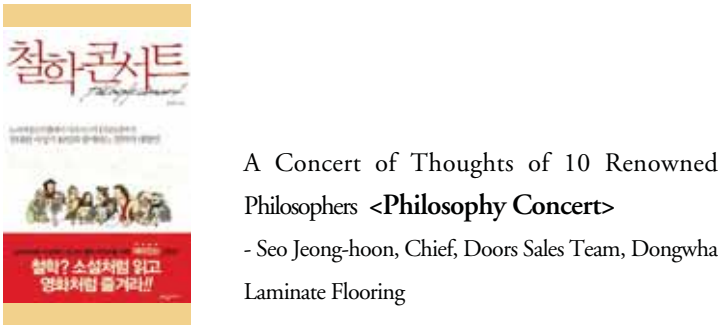
2008년 일본에서 개봉된 ‘개와 나의 10가지 약속’. 어머니는 병으로 일찍 사망하고 의사인 아버지와 ‘삭스’라는 강아지와 살게 된 아카리. 개를 키우면서 따뜻함을 배우고 엄마의 빈 자리를 메꾸어 가지만 성장하여 어른이 되고 사랑에 빠지면서 자신을 누구보다 아껴 주고 지켜 준 개를 귀찮아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삭스’와의 10가지 약속을 기억하면서 강아지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준다는 내용이다. 일본 영화 특유의 잔잔함과 그 안에 감동이 있는 영화로, 애원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소개한다.



The Japanese movie “10 Promises To My Dog”, which opened in 2008, depicts the story of a girl named Akari and her dog “Socks”. Akari’s mother agrees to keep Socks, who wanders into Akari’s yard one day, but only after Akari agrees to keep ten promises to Socks. Akari becomes more attached to Socks after her mother dies of an illness and grows more affectionate by spending time with her fluffy friend. But as Akari grows up and falls in love, Socks becomes a nuisance to her and she eventually forgets about her pet. But she remains by its side until its death because she remembers the ten promises she made to her dog. With its serene mood, “10 Promises To My Dog” is a must-see for animal lovers.

책 Books 위대한 철학자 10인의 대항연 <철학 콘서트>
- 동화자연마루 도어특판팀 서정훈 대리

동서양 철학자들과 그들의 저서를 모아 한판 향연을 펼치는 흥미로운 교양서로, 중고등학교 시절 교과서에서 접했을 때 어렵고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세계적인 사상가 10명의 철학을 향연에 초대된 손님들의 이야기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초대 손님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노자와 공자, 예수와 석가, 애덤 스미스, 퇴계 이황과 토머스 모어 등이다. 책을 읽고 있으면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바로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는 느낌이다. 보다 폭넓은 사고력으로 무장하고 싶은 동료 임직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Philosophy Concert” by Hwang Kwang-woo is an educational book that introduces ten renowned philosophers. It was written in a storytelling style and the readers act as the audience of the ten philosophers’ concert to make the subject of philosophy, which is often regarded to be boring and difficult, easier to understand. Reading this book is like having a conversation with a philosopher. Some of the philosophers introduced in the book are Socrates, Plato, Lao-tzu, Confucius, Jesus Christ, the Buddha, Adam Smith, Lee Hwang and Thomas Moore. This book is highly recommended to those who want to broaden their understanding of th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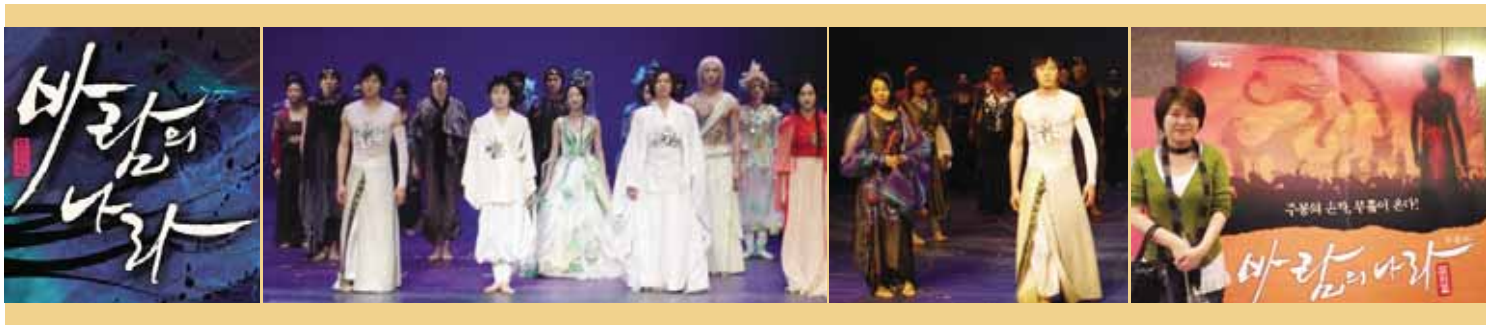
A Warm Heart and Cool-headed Thinking Finding Inspiration in History

Dear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 In times like these, cultural activities can be of great help in replenishing your emotional and spiritual energy. Here are a few movies, books and stories of Dongwha members that we would like to recommend to you.

뮤지컬 Musicals 슬프고도 아름다운 고구려의 이야기 <바람의 나라>
- 동화홀딩스 홍보문화팀 나영미 과장

2006년, 2007년 공연 이후 2009년 시즌3 공연을 갖는 ‘바람의 나라’는 김진의 원작 만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나에게는 뮤지컬이라는 공연에 새로운 재미를 느끼게 해준 의미있고 감동적인 공연이다. ‘바람의 나라’는 고구려 3대 대무신왕 ‘무휼’이 그가 바라는 고구려의 꿈 ‘부도(이상향)’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그린 서사극으로 음악, 안무, 의상이 짜임새 있게 어우러져 한편의 뮤지컬로 탄생하였다. 단순한 무대 디자인에 화려한 조명과 영상의 효과, 배우들의 울림 깊은 목소리와 실루엣이 빛을 발하며 장면 하나하나에 흠뻑 취하게 함으로써 최고

의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전통적인 사극 느낌의 무겁고 화려한 의상 대신, 모던하면서도 신화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무대 의상을 선보여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한다. 드라마 ‘하얀 거탑’에 사용되어 더 유명해진 메인 테마곡은 시각적인 만족만큼이나 귀를 즐겁게 한다. 공연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을 보시고 ‘슬프고도 아름다운 고구려의 이야기’에 빠져 보고 싶은 분들에게 6월 10일~30일까지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공연하는 뮤지컬 ‘바람의 나라’를 추천하고 싶다. 🌿



A Sad but Beautiful Story of Goguryeo’s 3rd King
<Kingdom Of The Wind>
- Na Young-mi, PR & Corporate Culture Team, Dongwha Holdings

The musical “Kingdom Of The Wind” has entered its third season this year after debuting in 2006. Based on Kim Jin’s same-titled comic book series, “Kingdom Of The Wind” centers on the story of the Goguryeo Dynasty’s third king, Muhyul.

With magnificent lighting and special effects as well as its remarkable cast, “Kingdom Of The Wind” is truly one of the best performances of all

times. In the first act, Muhyul takes over the army of his deceased brother, Haemyung, and continues his dream of expanding Goguryeo. Act 2 shows the process of Muhyul gaining power by eliminating his enemies. It also shows Muhyul’s war with King Daeso of Buyeo, and touches on the emotions of Muhyul’s wife, Eji, and son, Hodong. I have posted some photographs that I took during the musical. If you are interested, check out the musical, which will run at the Seoul Arts Center from June 10 to June 30. 🌿



동화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임직원의 자녀를 찾아가 아빠, 엄마의 사랑을 전하며 파티를 열어주는 이벤트를 가졌다. 이번 이벤트에는 동화홀딩스 미래전략팀 김웅재 과장의 자녀인 김규민(6) 군을 찾아가 아빠의 사랑을 듬뿍 전하였다. 규민이는 이날 아빠가 자신을 위해 열어준 파티를 보고 친구들 앞에서 왁지 어깨가 으쓱해지며 그 어느 때보다 아빠가 더욱 자랑스러웠다.

To mark the month of family, Dongwha organized parties for children of Donghwa employees. One of them was for the six-year old Kim Kyu-min, who is the son of Manager Kim Woong-jae of Dongwha Holdings’ 1st Future Strategy Team. Kyu-min was a happy kid and became the envy of his friends.



2008년 ‘4월 야외 열린광장 포토제닉 콘 테스트’에서 포토제닉 상을 수상한 해맑은 미소의 규민 군

사랑하는 규민에게
규민아, 네게 벌써 여섯 번째 어린이날이 다가오는구나. ‘어떤 선물을 받고 싶냐’는 질문에 또렷이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너를 보며 엄마, 아빠는 가슴이 뿌듯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만큼 컸다는 뜻이니가. 규민아, 엄마와 아빠는 네게 참 고맙다. 건강하게 커 주어서 고맙고,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바르게 자라기 위해 애써주는 네가 고맙다. 엄마, 아빠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뜻을 헤아려 주는 네가 고맙다.
정말 지금처럼만 자라주렴. 엄마, 아빠가 네게 바라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지금처럼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달라는 것. 그리고 지금처럼 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 말이야.
네가 자라면서 때때로 산다는 일이 무척 복잡하고, 힘든 일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겠지. 힘든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을 테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언젠, 어디서든 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또렷이 알고, 그것을 향해 바르게, 당당하게 나아간다면, 어려운 선택도 막막한 인생길도 모두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규민아, 사랑한다. 우주만큼, 아니 그보다 더, 더, 더!

2009년 5월 4일 아빠, 엄마가

Dear Kyu-min,
It’s your fourth Children’s Day. Your mom and I were proud when you told us what gift you wanted this year. Now we can say for sure that you’re a big boy because you know what you want.
Your mom and I are very grateful to you. We thank you for growing healthily and being such a good-hearted kid. We also thank you for always listening to our advice.
We hope that you will always remain a kindhearted and healthy person. We also hope that you will work hard for what you want and believe in.
As you grow up, you will face difficulties down the road and might have to make some tough decisions. Sometimes things will not work out the way you want them to. But we believe that you can overcome any obstacles as long as you have clear goals and know how to achieve them.
Honey, we love you with all our hearts.
Love,
Mom and Dad

May 4, 2009

Epilogue



우리사보 『나무동화』는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Green Dongwha Is Nourished by Your Love.

• 사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심는 공간입니다. 사보에 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또 내가 겪은 일들을 동화인과 공유하고 싶거나 사진과 함께 사보에 남기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보지기를 찾아 주세요.

"Green Dongwha" is about you. If you want to share your stories with other Dongwha members or post your photographs, feel free to let us know anytime.

• 동화의 수많은 대리점은 동화의 가족입니다.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특별한 일이 있거나 대리점을 알리고 싶을 때, 추천하는 대리점이 있을 때 사보지기에게 연락주세요. 동화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Dongwha's representative stores are also the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We are ready to listen to you feedback. If you have any stories to shares with us or want recommend any specific store, please contact PR and Corporate Culture Team of Dongwha holdings. We ask for active participation.

• 기타 사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보지기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홀딩스 홍보문화팀 최윤규

Choi Yun-Kyu, PR and Corporate Culture Team, Dongwha Holdings
Tel. 02-2122-0680 E-mail. cyk1200@dongwha-mh.com



2009 서울국제도서전을 ‘반짝반짝’ 빛낸 동화자연마루 Dongwha Nature Flooring Contributes to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2009's Success



• 올해로 15회를 맞는 ‘2009 서울국제도서전’이 지난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다시, 책에서 시작한다’는 슬로건 아래 국내 330여 개 출판사를 비롯해 세계 20개국 836개사가 참여한 이번 도서전에는 11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유아놀이방에 동화자연마루가 시공돼 엄마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미끄럼틀과 자동차, 그네 등을 타는 아이들에게 동화자연마루는 넘어져도 좋고 살을 맞대도 좋은 안전 지킴이가 되어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은 엄마와 아이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The 15th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was held at the COEX in Seoul from May 13 to May 17. Held under the slogan “A New Start With Books,” the fair drew some 330 Korean publishing companies and 836 publishing houses from 20 countries. This year’s event ended successfully, attracting some 110,000 visitors. In particular, children who came to the fair with their parents were able to play safely in the children’s playroom, where a floor provided by Dongwha Nature Flooring was installed.



Epilogue

Dongwha Story 1

우리사보 『나무동화』는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Green Dongwha Is Nourished by Your Love.

- 사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심는 공간입니다. 사보에 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또 내가 겪은 일들을 동화인과 공유하고 싶거나 사진과 함께 사보에 남기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보지기를 찾아 주세요.
"Green Dongwha" is about you. If you want to share your stories with other Dongwha members or post your photographs, feel free to let us know anytime.
- 동화의 수많은 대리점은 동화의 가족입니다.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특별한 일이 있거나 대리점을 알리고 싶을 때, 추천하는 대리점이 있을 때 사보지기에게 연락주세요. 동화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Dongwha's representative stores are also the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We are ready to listen to you feedback. If you have any stories to shares with us or want recommend any specific store, please contact PR and Corporate Culture Team of Dongwha holdings. We ask for active participation.
- 기타 사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보지기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홀딩스 홍보문화팀 최윤규
Choi Yun-Kyu, PR and Corporate Culture Team, Dongwha Holdings
Tel. 02-2122-0680 E-mail. cyk1200@dongwha-mh.com

Dongwha Story 2

2009 서울국제도서전을 ‘반짝반짝’ 빛낸 동화자연마루
Dongwha Nature Flooring Contributes to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2009's Success



- 올해로 15회를 맞는 '2009 서울국제도서전'이 지난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다시, 책에서 시작한다'는 슬로건 아래 국내 330여 개 출판사를 비롯해 세계 20개국 836개사가 참여한 이번 도서전에는 11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유아놀이방에 동화자연마루가 시공돼 엄마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미끄럼틀과 자동차, 그네 등을 타는 아이들에게 동화자연마루는 넘어져도 좋고 살을 맞대도 좋은 안전 지킴이가 되어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은 엄마와 아이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The 15th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was held at the COEX in Seoul from May 13 to May 17. Held under the slogan "A New Start With Books," the fair drew some 330 Korean publishing companies and 836 publishing houses from 20 countries. This year's event ended successfully, attracting some 110,000 visitors. In particular, children who came to the fair with their parents were able to play safely in the children's playroom, where a floor provided by Dongwha Nature Flooring was installed.



같은 아파트에 산다?
같은 마루 위에 산다!

이웃에게서 "마루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땐,
"어떤 마루"했냐 묻지 마시고
"어떤 동화자연마루"했는지 물어보세요
집은 모두 달라도 마루만큼은
대한민국 마루판매 1위 - 동화자연마루입니다